다양한 미션 그룹을 통한 미주한인사회를 위한 대안 교회 연구

# A STUDY CONCERNING AN ALTERNATIVE CHURCH FOR KOREAN-AMERICAN COMMUNITY THROUGH DEVELOPING DIVERSE MISSION GROUPS

By

Han, Jae 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ummit, New Jersey

2010

**ABSTRACT**

A STUDY CONCERNING AN ALTERNATIVE CHURCH FOR KOREAN-AMERICAN COMMUNITY THROUGH DEVELOPING DIVERSE MISSION GROUPS

By

Han, Jae G.

This thesis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e emerging paradigm for alternative church in Korean community. First, the Korean community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which is based on the infinite competition as the fundamental ideology. However, this ideology applies more to the oppressed and poor as if they have the competition that is unfair to them. The system of neo-liberalism makes Korean-American community to continue to fight and survive from the competition. Much of Korean-American churches are also greatly influenced by the competition. We can see the polarization of the wealth and the poor in churches as we find this phenomenon in the society. It is true that small churches are trying their best only to become one of the Mega churches. In other words, Mega Church Paradigm dominates and controls the churches in Korean-American community.

Second, Korean-American churches could not be the alternative for their community anymore with expansionist paradigm. Expansionism becomes one of the paradigms that are not influential with the decreasing number of church-goers in Korea. Annotation of church officials and construction for church buildings that are used to be the motivation for expansionism are now hindrance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y church. The issues of ongoing conflict and disharmony within Korean-American

churches are the problem generated by the church system and administration, not by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istic of congregation.

The third issue is how to handle the rapid leadership growth of layperson. Co-ministry paradigm in which minister and layperson cooperate together for one ultimate goal should be replaced with the practical and realistic alternative, not with an empty motto. The Priesthood of Laity becomes the main topic of conservation in postmodern society that regards diversity as its core value, by the reformers in the 16th century.

With the sense about this issue, the Third ecclesiology of Minjung Theology and Q community faithfully reflect the life of historical Jesus. Minjung Theology's ecclesiology advocates the talent-centered ecclesiology of the Holy Spirit from Christology that may lead churches into the danger of clericalism. In the chronological aspect, the Holy Spirit's ecclesiology should not only for Sunday but also one whole week. In the spatial perspective, it must be life-centered, not church-centered. Moreover, Minjung theology is layperson-centered. Layperson is Minjung and there is Jesus among them. And we could find out Jesus in Minjung. Therefore, the core of church should be layperson, not minister. The life of Q community is most similar to the life of historical Jesus. This means that we can discover the life of Jesus as the core of Christian faith. We can find our identity as we keep our duties as disciples who follow the life of historical Jesus. Christ of the faith created by systematic church should be refocused with the life of historical Jesus. Especially, the rediscovery of Lord's Prayer passed on by Q community will be the bridge that connects our lives to the historical life of Jesus.

In order to develop as healthy church, it needs to recover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We must overcom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 recover and rebuild the

community as one organism of Christ. Community should be based on the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This thesis will also look how the environments that intervenes the communication such as the patriarch culture influences the relationship. And I will discuss about how women play a positive role for mutual communication and dedicate for recovery of community in healthy.

Lastly, I will review the various programs that have been set up and run for experiment purposes at my church. This thesis will provide the detail about the elements of the new paradigm that will develop Korean-American community such as Sunday school, transformation of worship centered with adult group, social mission like homeless mission, and invention of mission groups based on diverse talents given by the Holy Spirit.

## ACKNOWLEDGEMENTS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그 날까지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담임목회자로 섬겼던 지난 8년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아픔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는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 안타까움이요, 좀처럼 자극받고 변화 받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본 논문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화해자 의식을 품은 목회자와 성도가 준비 되어야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부교역자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것이 미숙한 목회의 주요 원인이라는 깨달음으로 부교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의 과정을 통해 섬김의 도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역자로서는 논문이 다루고 있는 이론을 현장 속에 낱낱이 적용해 본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뉴욕 목양장로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의 모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자와 목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향후 교회들이 나아가야할 성경적인 교회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목자와 목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 켠에 가슴 저림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예수 믿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교회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목원으로 섬기고 있는 필리핀 목장의 정석옥 목자님과 유문숙 목녀님, 사랑하는 아내 오미혜 사모와 사랑하는 딸 지은이와 아들 지성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항상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어머니 한미순 권사님,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장인 오원식 목사님, 장모 기정옥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귀한 가르침을 주신 백창건 교수님과 NYTS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0년 뉴욕에서

유 용 진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하늘뜻 교회가 직면한 도전(Introduction to setting)

### 1)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하늘뜻 교회는 이민사회에 희망을 주는 대안 교회 공동체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민사회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도전은 현실에 가해진 억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현장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직면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패러다임의 출현은 본 교회가 감당할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본 교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상적인 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가장 큰 도전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환상이다. 결과론이기도 한 성장지상주의는 모든 기독교적 가치관에 침투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으로 목회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평신도 신앙의 수준도 이 관점에 따라 평가된다. 본인이 인식하는 이민교회의 여러 제반 문제들의 핵심에는 성장지상

주의의 폐혜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맘몬니즘이다. 교회 안에 침투한 이 맘몬니즘을 어떻게 예리하고 통찰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구별해 낼 것인지를 과제로 삼았다.

본 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초 신자이거나 기독교에 처음 입문한 새 신자들이다.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뿌리내린 건강하고 올바른 영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믿음과 행위의 통전적 융합을 이루도록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에 요구되는 사안이다. 어떤 삶의 자리가 가장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게 도와주는지 질문하게 된다.

현대 교회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 중의 하나가 이른바 '맥처치(McChurch)' 심리이다.[1]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물든 경제 제일주의가 가져다 준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고,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용인일 뿐이다. McChurch 시대의 종교인은 기독교 영성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USA Today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미국인 중 56%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 45%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 때문에 출석한다고 응답했다.[2] 요즘 기독교의 영성은 겨우 정신적인 안정이나 평안

[1]Charles W. Colson and Ellen Vaughn,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옮김 (서울: 홍성사, 2005), 62.

[2]Ibid., 62.

에 국한시킨 결과를 낳았다. 영성의 토대가 개인적인 상황,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의 욕망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자아로부터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작된 허상일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영성의 토대인 삶의 자리가 개인적인 삶에 국한되는 이런 현상은 나약하고 왜곡된 영성을 재생할 뿐이다. 나약한 영성의 한 형태는 신앙의 연륜이 높은 직분자들이 교회의 권력다툼에 쉽게 노출되는데 있다. 교회의 공간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욕망 표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영성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종교적' 이란 말보다 '영적' 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종교는 제도와 위선과 자유에 대한 억압 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3] 보편적 기독교 영성은 성령이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삶을 통해 형성된다. 기독교 영성의 생명과 그에 대한 정의는 삼위(三位)의 한 지체이자 인격이신 성령에서 온다.[4] 성령은 삼위의 완벽한 통전적 교통 안에 있으면서, 교회와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신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몸과 역사, 그리고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영지주의 Gnosticism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 영성은 신체적인 몸과 대립하지 않는다. 몸을 영성의 핵심적 토대로

---

[3]Rodney Clapp, *사람을 위한 영성*,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12.

[4]Ibid., 16-17.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육체를 인정함으로써 기독교 영성은 비로서 문화, 사회, 공동체로 확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 기독교 영성이 몸의 부활과 영적인 몸의 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실은 몸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에서 나오는 건강한 영성을 위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연약한 몸에서 건강한 영성이 태어난다. 사회를 사람의 몸으로 볼 때, 연약한 신체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연대함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아픔을 나누는 과정은 건강한 영성의 풍성한 원천이 된다.

본 교회는 Summit, NJ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United Churches of Christ와 America Baptist Church 두 교단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에큐메니칼한 전통을 갖고 있는 Christ Church 내에 위치해 있다. Summit은 부요하고 보수적인 타운이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는 약 21,000명이다. 이 가운데 연봉 20만 불 이상이 23% 이고, 5만 불 이상 20만 불 이하가 37%이다. 또한 주택상황은 62.8%가 단독이다. 이 중에 9개 이상의 방을 가진 집이 25.1%이다. 학사학위Bachelor 이상 소지자가 61.7% 이고, 이 중 대학원이상 박사학위 소지자가 30%를 차지한다. 백인의 비율이 87.8%인데 반해 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4.5%이고, 이 중 한인은 0.4%이다.[5] 하늘뜻 교회 구성원에도 이같은 Summit 타운의 학문적 경제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5]2000년 인구 센서스, http://censtats.census.gov/data/NJ/1603471430.pdf (accessed September 13, 2009).

다고 볼 수 있다. 직업적 분포도는 금융계, 연구소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편이 이민 2세대이고 부인이 이민 1.5세대이거나 1세대인 가정이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민 2세대임에도 한국어 사용능력이 대단히 높은 것 또한 특징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 상류층으로서 홈리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도록 본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찾는데 있다.

Summit은 대단히 종교적인 타운이다. 1664년 10월 28일 American Indian으로부터 이 지역을 구입했다는 식민지적 소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 이후, 역사적으로 1710년 인근지역인 New England, Connecticut, Long Island에서 청교도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정착 자들이다. [6] 타운의 크기에 비해 수 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 건물이 다운타운을 따라 10여개 이상 자리 잡고 있다.[7] 대형교회 건물에 어울리는 많은 회중이 참여하고 있고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8]

이처럼 부요한 타운에 자리를 정한 것 또한 본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억압에 직면해서 고난을 중심으로 함께 아파하

[6]The city of summit 공식홈페이지 http://www.ci.summit.nj.us (accessed September 13, 2009).

[7]다운타운 한 중앙에 Summit UMC, Central Presbyterian Church, Fountain Baptist Church, St Teresa’s RC Church, St John’s Lutheran Church, Calvary Episcopal Church, Christ Church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뿐 아니라, Oakes Memorial Outreach Center, Bridges Outreach Inc. 같은 사회봉사 성격의 종교적 기관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8]예를 들어 하늘뜻교회가 임대해 있는 Christ Church의 church member는 공식적으로 430명이다. cf. www.ucc.org (accessed Sepember 20, 2009).

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는 이상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의 공통적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부요한 타운의 성도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삶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

2) 새로운 대안교회를 향한 출발

본 교회는 2006년 7월 2일 첫 주일예배가 Christ Church내 Grace Chapel에서 목회자 가족만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건강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이동 없이 시작되었다. 미주한인 교인들의 수평이동 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는 지역 교회가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취약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나눔과 사랑을 근본 가치로 삼는 종교의 본질을 근간根幹에서 위협하고 있다. 2006년 9월 3일 설립예배를 드린 이후, 일곱 가정이 신입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물질적 이익중심의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우리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실존하는 인간은 대부분 소외되었고 외롭다. 전체에 속하고 싶은 욕구와 전체 속에 함몰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기 때문이다. 교회는 고난에 처해서 소외를 체험하는 개인들에게 공동체로서 초대한다.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의 형태이다. 하나님 나라가 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실현되는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다.

공동체를 이루는 지향점은 고난에 대한 공통경험이다. 다양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체험하지만, 고난 자체에 대한 느낌과 감정, 경험에 대한 인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회의 생득적 토대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의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mission을 통해서만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기독교 영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기독교에 처음 입교한 새신자가 처지에 맞게 교회 사역에 개입하고 있다. 선교적 방향을 나눔 운동에 두고 건강한 영성을 보증받기 위해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현실적 과제로 받아 들였다. 구제와 선교를 중심으로 한 나눔 운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Christ Church는 최상의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Christ Church는 100년 이상의 역사(1884년 설립)와 40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갖고 있는 대형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미 Summit 타운에서 활발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다른 공동체를 향한 개방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타운에 있는 타교단 교회들과의 연대, NYTS의 Singsing MPS를 비롯해, 많은 선교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구제와 나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Christ Church의 선교방향은 하늘뜻 교회의 선교 전략과 같은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1988년 Christ Church내에 Newark, Manhattan에 거주하는 Homeless를 위한

“Bridges Outreach(http://bridgesoutreach.org)”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낮에 정기적으로 홈리스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옷과 같은 다양한 기부품들을 나눠주는 Run은 지역사회의 각 학교와 직장단체, 교회들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교회도 하나의 Run으로 홈리스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헌옷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인이 운영하는 Dry Cleaners를 중심으로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홈리스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심 축 역할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2. 시행전략(Strategy statement)

### 1) 목적(Goals); 이민교회의 치유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교회의 분열은 현대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 현상이다. 이면에 많은 원인과 문제점을 갖지만 여기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각 지체임을 선언하는 교회론의 근본임을 말하고 싶다. 교회의 분열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반역적 해악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분열의 현상은 근본적인 바울의 교회론의 기초조차 두려움과 욕망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7년부터 1989년 초까지 18개월에 걸쳐 2,100명의 미국 남 침례교 목사들이 교회

에서 해직 당했다.[9] 이 중 58%는 교회 안의 분열 때문이었고, 46%는 만족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비단 특정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커뮤니티에 속한 교회들은 계속되는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회 분열과 관련해서 성장지상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성장지상주의적 패러다임은 계속적인 파벌주의와 분열, 무리한 예배당 건축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에 대한 재해석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분열은 소위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삼각분할 (triangulation)의 죄'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10] 이 단어는 원래 어느 지역 조사를 위해 삼각형으로 나누는 조사 방법에서 유래되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삼각분할이란,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직접해결하지 않고, 제 3의 인물을 두 사람간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삼각분할은 실제 상황을 훨씬 악화시킨다. 이런 의사소통의 삼각분할은 교회의 분열과 파멸의 중요한 현실적 작용인이다. 소통에 관한 중요성은 심리학적 질문에서 좀 더 소상히 다뤄질 것이다.

모母 교회의 분열을 기반으로 하는 개척을 피해 간 본 교회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토대에서 출발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이것은 분열보다는 연합과 통합, 한 몸이라는 공동체적 정신을 기반했다는 데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

[9]Charles W. Colson and Ellen Vaughn,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2005), 142.

[10]Jim Van Yperem,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종근 역 (서울: NCD, 2003), 199.

만약 도덕적 명분을 버리고 개척이 시작됐다면, 이것은 본 교회가 역사 안에서 살아 있는 한 끝없이 부정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가 올 교회에 대한 치명적이고 악마적인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교회 자체도 하나의 역사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중요한 억압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목회자 가정으로만 시작되는 독자적 개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 목회자의 사회적 지명도가 높거나 아니면 개척 교우들이 참여하는 네트웍이 초기 교회가 생명체로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독자적 개척론은 언제나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적 긴장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속에서 배아胚芽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을 교인들의 영적 성숙에 둘 것을 밝힌다. 영적 성숙의 방향은 개인의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는데에서 현실화된다. 또한 전인적 영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각 시대마다 해석학적 틀은 다르게 변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종교사회적으로는 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해석되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특별히 다양성의 가치를 교리주의적인 폭력과 교권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동성애 이슈는 교회에 대한 거대한 도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교리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

에서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실적[11] 교회론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본 교회는 교회 안으로는 고난을 신앙의 토대로 확보하는 인식의 전환과 이에 기반한 성도들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영성개발을 목표로 한다. 교인들의 인격적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건강한 영성을 다룰 것이다. 사람의 변화transformation야 말로 교회론의 핵심적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부지향적인inward 영성이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립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본인은 이를 위해 Christian School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한 영성을 보증하는 자양분은 함께 공유하는 고난의 자리이다. 이처럼 내부지향적인inward 영성과 외부적 고난과 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지향적인outward 영성은 상호 교류하며 통전할 때 비로서 건강하고 전인적인 영성이 형성될 것이다. 다시 보면 이 둘은 상보적이어서 서로 간의 지평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게 된다. Paul Tillich의 '상관방법론Method of Correlation'

[11] '현실적'이란 언어를 가장 명쾌하게 분석해낸 철학자는 Whitehead이다. 그의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개념을 통해 '현실적'이란 실재의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 현실태actuality는 추상적 사유를 통해 존재의 일부만이 관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인식작용의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지각내용은 직접적인 인상impressions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된 관념ideas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추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관념은 철학적 사유의 기본 토대가 된다. 그러나 Whitehead에 따르면, 이런 추상화는 현실적 존재를 해명하지 못한다. 왜냐면 철학적 사유로 받아들여진 관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cf. Alfred N. Whitehead,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서울: 민음사, 1996), 57, 73.). 본인은 존재보다 생성을 우위에 두는 Whitehead의 현실적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본 논문의 '현실적'이란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에 따르면 질문과 대답, 상황과 메시지, 인간적 실존과 신적 계시를 상관시키는 신학적 연구방법론이다.[12] 영성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상황에 묻히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 이기적인 개교회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능성이 신학적 논쟁과 같은 이론적 토대에 있지 않고, 고난 받는 자와 함께 하는 신앙적 삶과 같은 공통분모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건강한 영성개발의 결과는 교회일치 운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2) 목표(Objectives)

미자립 교회의 생존은 멤버의 협조 및 동참이 절대적이라는 의식이 존재한다. 특별히 미주 한인사회에서 대다수의 개척멤버들은 모교회의 분열을 통해 얻어진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친척이나 모교회의 자발적인 선교적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순응하는 유혹이 목회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많은 수의 개척교회들이 모교회의 분열에 따른 개척멤버의 유입이라는 현상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숙명적 수용론이 미주 한인교회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식의 결과들은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의

[12] 김경재, *폴 틸리히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215.

갈등과 불신을 일으키면서 공동목회를 저해하는 비합리적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은 기존 교인의 수평적 이동이라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왜곡된 의식구조가 지적된다. 이것은 실재적으로 부흥이라기보다는 '욕구에 따른 단순한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양태에 가장 이득을 얻는 것은 대형교회들이다. 대형 교회가 갖춘 선진적인 시설과 인적 자원은 더욱 교회들 사이의 차이를 벌리고 있다. 이처럼 수평적 교인들의 이합집산은 건강한 교회론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면 목회의 방향과 중심대상이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교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지반이 연약한 건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수평이동은 반대로 가파른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Summit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으므로 해서 개척초기에 10가정 이상이 처음 몇 달 사이에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수평이동 중인 교인들이었다. 그러나 개척교회의 취약성 때문에 정착률이 10%대를 밑돌았다. 이것은 교회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개척교회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군다나 독자적 개척교회인 경우 여기에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교인의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회심回心 자가 교회성장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선교적 목표이어야 한다.

미자립 교회의 생존과 관련된 의식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해야

가능할 것이다. 홈리스 사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미자립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물량주의를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전도전략을 답습한다면 생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본력이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면 승산은 없었을 것이다. 다윗 자신도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 버렸다(삼상17:38,39).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가 전부였다. 우리는 다윗의 손에 든 이 상징물을 통해서 대형교회 사이에 낀 미자립 교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과 인적자원과 같은 물질적 한계는 Bridge Outreach inc. 와의 연대에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그들은 이미 1998년부터 홈리스 사역을 진행해 왔다. 인근의 고등학교, 교회, 직장 단체등과 같은 직능단체 30여 곳과 연대하고 있다. 협력사역에 많은 경험을 가진 그들과의 연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뜻 교회는 Bridge Outreach에서 행하는 Friday's run의 한 부분으로 참여할 것이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참여정도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다. 처음 시도되는 것은 지역과 인맥을 통해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들의 네트워크 network를 형성할 것이다. 1차적 목표는 10개 세탁소의 네트웍 형성에 있다. 단순히

옷을 모으는 차원에서 발전하여 좀 더 높은 차원의 사역 즉, 주체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역의 주체로 하늘뜻 교회 회중을 세우는데 중심적 목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는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한인교회들과의 연대 및 교회일치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본 교회 교우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영성의 직접적 토대로서의 고난의 자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집중적 12주 성경공부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다. 이 공부는 성서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분야의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가난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서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의식변화를 추구한다.

가난한 가정과 자매결연 맺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교우들과 가난한 이웃의 네트워크는 홈리스 사역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일할 주체들이 부족하다. 소형교회의 생득적 한계이다. 많은 부분이 협력사역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는 존재한다. 이것은 홈리스 사역에 뜻을 함께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연대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접합점이 존재한

다. 현재는 하늘뜻 교회 담임 교역자와 Bridge Outreach Director와 연대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한계이다. 하늘뜻 교회 구성원 중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자를 개발해서 그를 협력사역의 주체로 내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홈리스 사역의 많은 경험을 어떻게 축적하고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성숙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드는 과제도 안고 있다.

주체로 서는 문제는 가장 내면적인 여행을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이 여행을 돕는 일을 크리스천 스쿨이 감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은사의 다양성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야 할 포스트모던적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 안의 풍토가 절실하다. 이를 가장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은 교리와 교권주의일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해야 할 것이다.

## 제 3장 신학적 질문(Biblical Component)

###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대안교회(Alternative Church)를 위해 민중신학은 어떤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가?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emerging paradigm이 절실하다. 여기서의 패러다임은 '전체'를 보는 방식 곧 종합적 이해방식a comprehensive way of seeing을 말한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해석의 틀로서, 특수한 것들을 그 전체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방식이다.[13] 이처럼 전체를 보는 해석의 틀이 바뀌면 세부를 보는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미주한인교회가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과 세상의 도전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일 되는 목표는 새로운 대안 교회 공동체를 미주 한인사회에 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본 교회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특별히 신학적 연구조사에 있어서 본인은 민중신학의 교회론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민중신학은 현실세계의 억압과 고난에 참여한 신앙고백의 신학적 성찰이다.

기독교를 새롭게 보는 방식인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난 백 년 넘게 발전해 온

[13]Marcus J. Borg, *기독교의 심장*,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18.

것으로, 최근에 비로서 주류 교단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풀 뿌리 운동이 된 방식이다. 여기에는 UCC, UMC, ABC, PCUSA, Disciple of Jesus, Episcopal Church 등이 포함된다.[14] 이것은 기독교가 현대 세계와 현대 이후 세계와의 만남에서 생겨났다. 기독교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주의, 배타주의, 기타 해로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어떻게 조장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방식이다.[15]

본 교회와 같은 대안교회는 제도나 물적 토대가 아닌, 가치 중심의 예언자적 전통에 서고자 노력한다. Water Brueggemann은 그의 대표작인 'The Prophetic Imagination'에서 성서를 관통해서 흐르는 두 가지 전통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모세의 출애굽 탈출 공동체가 가진 alternative consciousness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대표되는 royal consciousness이다. 전자는 평등경제, 정의와 공감의 정치,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반면, 후자는 복지와 풍요, 억압적인 사회정치, 통제된 하나의 정적인 종교를 지니고 있다.[16] 이 두 의식에 따르면 민중신학은 모세의 출애굽 탈출 공동체가 가진 alternative consciousness이다. 민중신학자이자 교육자인 문동환은 '떠돌이 신학'에서 성서의 원래적 전통은 출애굽전통이라고 말한다. 다만 축복과 풍요 중심의 다윗 전통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비-성서적인 세

---

[14]Ibid., 20.

[15]Ibid., 9.

[16]Young Jin Min, *A Study on the MinJoung Theology in Korea* (Seoul, Korea: Korea Christian Academy, 1983), 14.

속주의라고 비판한다. 대안교회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예언자적 전통에 서려는 노력에서 시도되었다.

우리 시대의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역사의 거울이 필요하다. Bonheoffer 목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다. 그가 고민했던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신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욕망을 투사한 한국사회 및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씨름하는 세계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비슷한 세계의 도전에 이민 교회는 노출되어 있다. Bonheoffer 목사는 고백교회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묻고 있다.

히틀러 정권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다. Bonheoffer 목사가 투쟁했던 히틀러 나치정권은 세계 대공황과 연관되어 있다. 1925년 2만 7천명이던 나치 당원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에 거의 7배로 늘어났다. 세계 대공황이 히틀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17] 1923년 8월의 마르크Mark화 시세는 전쟁 전의 110만분의 1, 9월에는 2,354만분의 1, 10월에는 60억 분의 1로 폭락했고, 인플레와 식량부족에 항의하는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18]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서 독일은 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가였다. 이후 출현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세계 대공황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장벽을 만났

[17]구학서, *이야기세계사 2* (서울:청아출판사, 2008), 511.

[18]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서울: 푸른나무, 2006), 208.

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적 타격이 큰 중산층은 파시즘의 지지자 또는 구성원이 되었다. 독일국민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치를 선택했다. 나치는 독일 국민의 동조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제일주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욕망을 본다. 문화, 민주주의, 예술 등이 모두 경제 제일주의 앞에 소용이 없었다. 독일 국가교회도 국가권력에 예속되었고, 성직자의 일부는 반 유대주의, 반 자유주의를 재건하려 나치에 자진해서 협력했다.[19]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반 유대감정, 이 그룹이 히틀러의 전제정치에 제공한 협력에 대해 Bonheoffer는 교회투쟁의 한복판에서 살았으며 따라서 그에게 귀 기울이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20]

이런 상황에서 Bonheoffer 목사는 독일 국가교회를 비판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에 가담하였다. 이미 Bonheoffer는 히틀러가 집권한 지 이틀 만에 투쟁 대열에 참여했다.[21] 독일 국가교회가 1933년 통과된 아리안 조항에 대해 침묵할 때, Bonheoffer는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라는 강의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19]구학서, 520.

[20]John D. Godsey,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유숙성 & 김성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

[21]Eberhard Bethge,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103.

교회는 모든 사회 질서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빚을 지고 있다. 교회는 국가가 과다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여, 바퀴에 짓밟힌 희생자를 싸매어 줄 뿐 아니라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22]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냈다. 그리고 독일 국가 교회는 그 역사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했다. 오직 Bonheoffer를 비롯한 고백교회만이 욕망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 고백교회의 "독일교회투쟁German Church Struggle"이 그것이다. 또한 Bonheoffer 목사와 우리의 접합점은 그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관심사의 중심이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데 있다.

Bonheoffer의 생애와 사상은 교회는 "값싼 은혜"의 기초 위에 존립할 수 없고 오로지 고난 받는 사랑suffering love, 곧 십자가 길의 기초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이처럼 교회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23] Bonheoffer는 값싼 은혜가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원수라고 말한다. 회개 없는 죄인 된 사람의 설교, 교회의 치리 없는 세례, 고백 없는 교제, 회개 없는 죄 사함이 값싼 은혜라고 규정한다. 제자직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 있고 성육신 하신 예수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22]Ibid., 106.

[23]John D. Godsey, 20.

말한다.[24]

우리는 Bonheoffer 목사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참된 교회를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십자가 안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Bonheoffer 목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교회는 값싼 은혜의 유혹에서 출애굽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태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친미반공주의, 배타주의, 권위주의, 물량주의가 그것이다.[25] 한국교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표방하면서 성장에 성공한 중대형교회들이 첫 번째이고, 이런 이념들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성공하지 못한 소형교회들small churches, 그리고 이런 가치들에 맞서는 대안교회alternative churches가 세 번째이다.[26] 본인이 몸담은 교회는 대안적 교회의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미주 이민사회에 윤리적,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 줄 대안교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대안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면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민중신학의 교회론에서 차용하고자 한다.

---

[24]Ibid., 176.

[25]이혁배, "한국교회의 행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신학사상* 146 (Fall, 2009), 247.

[26]Ibid., 257.

본인이 대안교회론alternative ecclesiology을 만들기 위해 민중신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적 토대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중신학은 가장 한국적인 신학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민족의 배경과 뿌리를 바탕으로 꽃핀 신학이란 점에서 의미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역사적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해석을 통해 형성된 신학이란 점이다. 이 말은 가장 한국적인 패러다임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특히 민중신학은 한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한Han'이라는 개념을 신학적 사유의 본류로서 받아들였다. 서남동 교수는 목회자의 사명은 민중의 '한恨'을 풀어 주는 '한의 사제司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중신학은 한국민의 역사에 담긴 풍습, 전통, 문화를 신학의 중심주제로 끌어 들였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서구중심주의적 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한국 민중의 삶을 끌어 안는 창조적 신학함인 것이다.

둘째, 민중신학은 text와 context의 관계에서 상황context을 변두리에 두지 않고 신학함의 중심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자리로 끌어 들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민중신학에서는 교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탈문자화의 선언이 여기에 있다. Text의 독재가 허락되지 않는다. 물론 민중신학이 말하는 상황은 고난과 억압의 현장이고 이에 대한 '각覺'이 신학적 사유의 본류이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동시에 경제적이다. Text로 context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oppressed context로 text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런 해석학적 방법론은 소형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

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게 해준다. 소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상승'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자리에서 가치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정당성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인 약자의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식의 한계에 머무르는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주고 드러내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자체가 하나의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틸리히에 의하면 계시 사건은 허공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계시란 무의미하다. 존재의 근거와 심연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 안의 구체적 개인과 집단이다.[27] 계시 사건의 주관적 측면, 즉 계시를 계시로서 경험하면서 그 능력에 의해 붙잡히고 변화되는 측면은 인간의 몫이다. 그렇다면 계시의 구체적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구체적 삶의 자리로부터 발견되고 고백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는 제 3 세계 신학에 빚을 지고 있다. 특별히 남미 해방신학은 근대 역사의 희생자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과 은총을 반영하고 있다. 가난 속에서 경험된 그들만의 특별한 하나님 계시체험, 특히 Gustavo Gutierrez 신부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당파적 선택을 말한다.[28] 19세기 식민지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

---

[27]김경재, *폴 틸리히: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234.

[28]David F. Ford and Rachel Muers Ed., *The Modern Theologians* (London: Blackwell Publishing, 2005), 469.

진 남미의 가난은, 서구신학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냈다. 1950년대와 60년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양 진영 모두에서 '정의'와 '평화'가 신학적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29] 이것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변혁Transformation의 소중한 잠재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억압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고난 속에 나타내신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현실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연대할 때 건강한 영성의 뿌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민중신학은 현장중심의 교회론을 주장해 왔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된다. 건물이 아니라 민중사건이 일어난 역사의 자리가 곧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사건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로의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 찾아오는 교회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회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넷째 본인의 판단으로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민중신학의 관심이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대망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왔다. 이는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뿌리를 유지하면서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제도화에 힘쓰게 되었다.

---

[29]Ibid., 470.

이에 허점과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종교개혁은 그 한계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교회의 유산이 아닌, 예수 자체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이 보여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은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대안교회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많이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사적 예수는 예배갱신에 있어서 주기도문의 부활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섯째는 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민중신학이 말하는 억압적 삶의 자리라는 것이다. 가치 중심의 대안교회가 갖게 되는 억압적 상황은 민중신학이 관심했던 고난과 박해의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대안교회는 물량주의, 권위주의 등을 거부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이런 물량주의, 배타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행태에 물들어 있다. 그들을 개혁의 자리로 초대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공통적인 삶의 자리를 민중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중신학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판력을 보여준다. 민중신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 어떻게 억압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2. 대안교회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민중신학의 교회론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

민중신학에서 주장하는 민중은 누구인가? 민중신학에서 민중개념은 다분히 포괄적이어서 때로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용섭은 민중신학이 주장하는 민중이 너무 관념적이라고 비판한다.[30] 지나치게 집단적이고 계층적인 접근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인 존재론적 깊이에서 죄를 바라보는 인간이해가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한다. 전경연 교수도 민중론의 집단주의적 개념의 이상화 또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31] 그러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민중신학의 장점은 민중 자체의 개념을 논의하기 이전에, 민중을 발견하는 삶의 자리를 먼저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 왔다는데 있다. 삶의 자리는 인식과 개념의 숙성시키고 자라게 하는 모태이며 뿌리이다. 언어는 삶의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삶을 떠난 언어는 관념이 되며, 더 이상 삶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어떤 면에서 관념은 폭력적으로 삶을 억압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민중신학 비판론자들은 개념화된 실체가 빠진 민중관념에 대한 비판은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민중신학 비판론자들은 민중의 삶의 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추상성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30]정용섭,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592 (2008.4), 62.

[31]전경련, *한국민중신학 연구* (서울: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1983), 65.

민중을 실체로서 이해하려면 민중의 삶의 자리에 서서 보아야 한다. 민중의 삶의 자리에 서면, 민중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도 이를 증명하는데 있다.

대체로 민중신학은, 서구신학과는 달리, 민중의 실체를 개념화하지 않는다. 추상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안병무 교수도 민중을 설명하려 들면 개념이 되고, 개념은 실체와 유리되어 버린다고 지적한다.[32] 민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만나는 현실에 의존하면서 열려 있다. 민중은 하나의 굳어진 계층이나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중은 해방으로 가는 몸부림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과정적 존재이며, 변화하는 존재이며, 의식적 존재이다.[33] 역사 속에서 민중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다. 역사의 변화에 따라 민중의 개념은 그 실체에 있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실체를 담고 있다. 이 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역사적 요구에 따라 민중은 백성, 민족, 계급, 시민, 공중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때마다 시대의 문제를 감당했다. 그런 면에서 민중은 억압의 구조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억압의 구조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사적 성서 방법론은 실질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대안교회 패러다임을 위해 민중신학이 제공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

[32]안병무, *민중신학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7.

[33]권진관,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서울: 동연, 2009), 42.

신학이라는 것이다. Wolfhart Pannenberg 는 그리스도론은 신약 성서의 kerygma 뒤에 숨겨진 역사적 예수의 실재 자체로 돌아가서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34] 고난과 억압의 현실에 나타난 부조리를 온 몸으로 살아야 하는 밀려난 사람들outsider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민중신학은 항상 민중의 감정, 느낌,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눈과 귀와 마음을 민중을 향하여 열어 놓아야 한다.[35] 이것이 민중신학의 장점이자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리화되고 신학화되어 현실에서 벗어난 관념적 신학을 거부한다.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 이것은 교리 중심의 서구신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제 3세계의 고통 받는 현실을 반영한 도전이다. Post-Christian Era의 신학인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 기능을 하던 시대가 끝난 이후의 민중 신학인 것이다.[36]

둘째,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작은 교회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지양하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대형교회나 Mega-Church는 그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동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 제도로서의 교회보다는 예수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공동체는 작은 교회운동 또는 소 종파small sect 운동이 더 바람직하다. 제도로서의 교

[34]David F. Ford, *The Modern Theologian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since 1918*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5), 131.

[35]권진관, 372.

[36]김경재, *한국의 민중신학 연구* (서울: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1983), 97.

회는 목사를 비롯한 위계질서, 예산, 교회 건물이 중심이며, 헌금 강요와 외계질서에의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37] 이처럼 제도로서의 교회는 헌금규모, 건물규모, 성직제도 등 위계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교회의 확대재생산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로서의 교회를 지양하고 예수운동으로서의 교회론은 민중신학이 내세운 성령의 교회에서 특징이 드러난다.

민중교회는 제 3의 형태인 성령의 교회이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직제 중심이 아니라, 각 개인의 독특한 삶의 여정이 내포된 은사중심이고 평신도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이 성전종교와 개신교의 성서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다. 성령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조직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영적 힘, 곧 교회에 내재하는 힘과 구조로써 교회의 영적 본질이다.[38] 성령의 은사는 학벌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참여적 카리스마에 의한 사건으로 존재한다. 교회에서는 사건으로서의 존재양태가 중심이지, 건물이나 직업적 목회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민중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야 제도유지를 위한 재화 낭비를 줄이고, 공공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민중신학의 신학적 기반을 그리스도론Christology이 아니라 성령론에 무게중심을 두는데 있다. 성령은 위계질서 안에서 숨쉴 수 있는

---

[37]권진관, 335.

[38]죽재서남동기념사업회 엮음, *서남동과 오늘의 민중신학* (서울: 동연, 2009), 129.

공간을 열어준다.[39]

셋째, 민중신학은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준다.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의 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이상적 교회형태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민중이 고통 받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 자체이다.[40] 민중신학은 성령의 활동과 민중사건을 일치시켰다. 안병무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본질을 종교사회학적으로 자기초월의식에 충만하여 기존의 전통, 제도, 권위의 억압 체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종말론적 민중사건으로 이해했다.[41] 성령의 활동이 민중 사건으로 나타나고 민중 사건을 통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민중운동 자체가 성령운동이 된다. 한국의 촛불교회가 그 예가 된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시작된 촛불교회는 민중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현장에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이다. 촛불교회에 참여하는 방인성목사(함께 여는 교회)는 이렇게 과제를 설정했다.

> "중요한 이슈 두 개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성과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연합성 인데, 촛불교회는 이 둘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진리를 사회 속에 실현해내고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42]

---

[39]권진관, 333.

[40]죽재서남동기념사업회 엮음, 129.

[41]Ibid., 129.

[42]"손에 손에 든 촛불,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13 (accessed July 7, 2009).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형식화된 예배에 대한 자성이 바로 ‘촛불교회’candle church이다. 예수가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이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희망을 주었던 그 사명을 이어받고자 하는 자성에서 출발하였다. 촛불교회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43]

민중교회는 예수의 민중적 삶에 근거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종말론적 해방공동체이다.[44] 그러므로 교회의 구조 및 조직은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목사와 장로 중심의 위계적 질서구조가 아니라, 은사를 바탕으로 한 평신도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이면서 각자의 독특한 색깔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실현에 핵심적 가치가 있다. 이것은 또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교우들의 다양한 방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한다. 이과 같이 교회 조직과 운영에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참여의 공간이 열림으로써 교회를 향한 피동적인 대상화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은사를 바탕으로 한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성서 해석권을 민중에게 돌려 주는 일,

---

[43]“손에 손에 든 촛불,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13 (accessed July 21, 2009).

[44]죽재서남동기념사업회엮음, 162.

성직주의와 권위주의의 제거, 수평적 교회 구조로의 개편, 만인제사장직의 수용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된다.[45]

3. 은사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민중신학이 제시하는 교회는 제 3 의 교회론인 성령의 교회론이다. 가톨릭 교회의 독일 신학자 Karl Raher 의 교회론도 성령론에 기초한다.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구조를 가진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로 평등하게 참여한다.[46]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사중심의 교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각자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47]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미션 그룹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삶의 역사적 현장이다. 이것은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예배의 생활화 또는 생활 속의 고백이 모아진 축제로서의 예배가 통전적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민중 신학의 그리스도론인 민중 안에 예수가 있다는 명제가 실현되기

---

[45]Ibid., 170.

[46]권진관, 332.

[47]Elizabeth O'Connor, *Eight Day of Creation: Discovering Your Gifts And Using Them* (Washington, D.C.: The Potter's House Bookservice, 1971), 32-33.

위해서는 역사의 삶으로 고백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삶에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기쁨, 슬픔, 고난, 아픔이 은사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정화되어 예배에 들어와야 한다. 미주 한인 개신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기 보다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운동으로서 교회가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예수 운동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중의 삶이 주변으로 밀려 날 수 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삶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인들을 신앙의 주체로 서도록 돕기 보다는 교회의 건물과 부흥 지상주의적 프로젝트를 위한 동원 수단으로 대상화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미주 한인사회 개신교는 오직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그것도 개 교회 중심적인 이기주의만이 패러다임의 중심을 차지하고 독재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교권적 폭력 앞에서 삶과 신앙, 주중의 시간과 일요일의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 본인은 임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교회 건물 건축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대립과 갈등, 법정 소송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일요일 예배 중심적이고 보이는 교회 중심적인 교권주의에 있다고 판단한다. 은사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권위는 오직 교권에 의지하고, 이미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 같은 권위는 용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사를 발견하고 이에 바탕한 다양한 미션 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은사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Thomas Merton 이 말한 것처럼 은사는 존재의 중심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Gordon Cosby 목사는 우리 각자가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48]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소명을 알아 가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49] 소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존재론적 만남에서 깨닫게 된다. 미국의 소 그룹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공동의 이해나 헌신 없이 소속된다는 것이다.[50] 이것은 은사 중심의 소 그룹 운동이 철저한 자아성찰의 신앙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볼 수 있다. Bruderfhof Communities 의 설립자 Eberhard Arnold 는 "신앙공동체가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을 선명하게 규정할수록 더욱 하나의 교회로 인식될 것이라" 고 했다.[51]

권위는 은사에 귀속된다.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룹에서 인정되면 은사의 영역에 한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룹 회원들은 은사 받은 이의 권위를 인정해

---

[48]Ibid., 6.

[49]Ibid., 24.

[50]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54.

[51]Ibid., 93. 재인용.

줘야 한다. 이것이 그룹 내 권위의 기초가 된다.[52] 이 부분은 교권 중심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의 토대가 교권에서 나오지 않고 은사에 있다는 것이다. 교권은 신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얻지만 은사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깊음의 만남에 권위를 부여한다. 교권은 목회자에게 좀 더 민주적으로 열려 있고, 은사는 민중에게 개방적이다. 그러므로 은사 중심의 평신도 교회 공동체는 삶의 현장을 가장 올바르게 교회 사역에 반영해주고, 교권주의를 거부하는 성령 중심주의적 반교권주의이다.

다양한 은사의 지지자로서 교회는 마치 여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우습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모험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53] 또한 교회는 성령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이 흐름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54] 교회는 은사 중심의 다양한 미션 그룹들이 존재해야 건강하다. 구역과 셀 그룹 같은 소 그룹 운동은 많은 형태를 띠고 존재해 왔다. 교회 내에 작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 그룹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55]

---

[52]Elizabeth O'Connor, 32.

[53]Ibid., 46.

[54]권진관, 332.

[55]Randy Frazee, 40.

은사를 바탕으로 평신도 리더십이 발휘되는 미션 소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해준다. 또한 이 운동은 삶의 자리 측면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다양성을 담아 낼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조직신학의 신론적 측면에서 성령론 중심이고, 계시론적 측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이고, 특별히 민중 안에서 예수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현실적 패러다임은 은사를 바탕으로 한 평신도 리더십이 극대화된 미션 소그룹 운동에 있다고 믿는다.

## 제3장 성서적 질문

1. 대안 교회 공동체의 패러다임에서 왜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Q 공동체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가장 잘 전승할 수 있었는가? 역사적 예수의 삶과 Q 공동체의 삶의 공통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예루살렘교회와 바울을 잇는 소위 사도정통교회 전통을 받들어 왔다. 이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부활체험을 교회의 시작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Q 복음서는 바울과 달리 ‘하나님 나라’가 케리그마의 중심에 서 있다.[56] 신앙의 그리스도는 교회사에 존재해 왔던 교회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사도신조는 역사적 예수 전승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의 그리스도 전승에 근거하여 고백되었다. 사도신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에 관한 종교religion about Jesus는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예수에게서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는 사라지고, 일종의 종교적 제의 시스템cultic system의 대상이 된 것이다.[57] 우리는 잘

[56]김명수, *큐복음서의 민중신학* (서울: 통나무, 2009), 124.

[57]Ibid., 49.

못 놓여진 교회 시스템에 갇혀 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탈-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의 메가 처치들이 앞다투어 더욱 더 교세를 늘리고 예배당 건축에 몰두하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개신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바라는 요구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예가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많은 부분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현실 속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회가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무-종교인 중에 56%가 과거에 개신교인이었다. 반면에 불교도는 20%, 천주교는 18%에 불과했다.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비-신자들보다 더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도 26%에 불과하다.[58]

한국사회는 개신교 신자들의 정직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완상 교수는 한국개신교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근본주의적 자기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군 정신으로 무장한 듯 하다며 비판한다. 둘째는 교파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 교회local church 이기주의에 빠진 현실을 비판한다.[59]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개신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개신교회들이 구축해온 신앙 체계와 교회구조 및 믿음의 내용에 대

---

[58]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교회 힐링 메시지* (서울: 김영사, 2009), 136.

[59]Ibid., 47-48.

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메가 처치는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빠져 더욱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양태속에서 섬김의 대상인 세상과 괴리되고 있다. 세계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인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의 수적 감소는 교회가 세상에 내놓은 권위주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개 교회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에 대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어두운 현실 앞에서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독교로서 명명된 교리화, 교권화된 체계 이전의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색된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자체의 삶을 교회는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 물론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의 상황에 처한 교회들이 말씀을 신학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이름으로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리화된 신앙의 유산은 역사의 현장에 처한 지금의 교회들에겐 오히려 역사를 도외시한 교리주의적 억압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 공동체는 ‘영’을 자유로운 힘으로 묘사하는데, 바울의 신학을 교회화하면서 주류 그리스도교가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체계화하려는

운동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영’을 상정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60] 예수에 관해 선포했던 교회의 전통을 세울 수 있었던 좀 더 근원적인 바탕인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교회는 자체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Q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언자로 보았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따름의 대상으로 여겼다. 예수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외쳤고, 예수가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대로 펼쳤다.[61] Q 공동체는 유다가 망한 AD 70년경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기득권과 공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지점까지 Q 공동체는 역사의 예수가 추구했던 삶을 하나님 나라 운동 중심으로 살아냈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토대를 새롭게 변혁시켜야 할 과제를 역사의 예수가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외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물량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현재의 교회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역사적 예수의 삶과 현재 한인교회의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수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기득권의 이익을 교회가 대변하고 있다면, 역사적 예수의 삶과 동떨어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교회 개혁은 역사적 예수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에 의해 해석된 신앙의 그리스도 대신 우리는 그 원천이 되는 역사적 예

[60]김진호,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서울: 동연, 2010), 36.

[61]송기득, *역사의 예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98.

수에서 새롭게 교회론을 고민해야만 한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다. 교회의 해석과 신앙고백이 아닌, 갈릴리 현장에서 삶으로 보여준 역사적 예수가 이 시대를 이끌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떠 오르는 이유는 당연하다. 강단의 선포는 있으나, 그 선포를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없는 이유에서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효력은 선포되지만,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의 삶은 크리스천들에 의해 삶의 모범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예수를 가장 잘 전승해 준 집단은 Q 공동체이다. Q에 나타난 예수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문학비평을 통해 정리되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자료 이외의 공통자료를 말한다. Q에 관한 문학비평적 연구의 과제는 Q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다. Q 문서 전승 배후에는 익명의 편집자가 서 있다. Q 편집자는 초기 사도집단에 속하였을 것이다. Q 진원지가 팔레스타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루살렘인지 혹은 갈릴리 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Q에 수난역사와 부활역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가 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다.[62]

Q에 대한 양식사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었다. Q 자료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훈계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되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 이야기 전승을 바울의 부활 kerygma와 접합시켰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케리그마적 요소들을 포함하

[62]이성덕, *이야기 교회사* (파주, 경기: 살림, 2007), 186.

고 있다면, Q는 단지 훈계를 위한 말씀만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훈계의 목적으로 수집된 Q는 이미 구전oral tradition 단계에서 마가와 독립적으로 전승되었다. 공관복음서는 그들 고유의 삶의 정황에서 쓰였다면, 편집과정에서 Q의 고유한 삶의 정황이 희생되고 있다.[63] 결국 Q의 가장 오래된 전승 층은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초창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승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Q의 마지막 편집은 기원후 50/60년경 갈릴리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했던 헬레니즘 계 초기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것이다.[64]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수의 말씀들이 첨가되었다. 이런 전승사적 과정을 거친 후에 일회적 편집에 의해서 Q복음서가 완성되었을 것이다.[65]

Q 공동체는 예수와 바울 사이에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A.D. 4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Q 공동체 운동은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30년경)과 바울의 회중교회 운동(50년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예수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66] Q 공동체는 예수의 육성이 담긴 자료를 전해 주었는데, 팔레스타인의 변두리 갈릴리와 시리아 접경 시골지역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갔던 초기그리스도교 소종파sect 집단이었다. 바울의 회중교회가 헬레니즘 세계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Q 공동체의 근거지는 갈릴리와 시리아의 시골을 근

---

[63]김명수, 90.

[64]Ibid., 96.

[65]Ibid., 102.

[66]Ibid., 125.

거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Q와 같은 말씀 공동체인 도마복음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도마복음서는 1945년 이집트 카이로 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나일강 상류 Nag Hammadi에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다.[67] 이집트 고어인 Coptic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는 Q복음서와 같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보다 10년 내지는 20년 정도 더 오래된 전승을 갖고 있다. 도마복음서도 Q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직 말씀만을 전해주고 있다. 도마복음서를 주목하지 않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의 진척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68] 전승사적으로 볼 때 도마복음서는 Edessa 지역의 그리스도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복음서인데, 마르시온과 동방정교회 전통이 도마복음서를 계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Q는 서부 시리아 전통을 따라 마태복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69] 하지만 도마복음서의 구전 전승에 있어서 Q와 공유하고 있는 자료가 적어도 50개 정도된다.[70]

이와 같은 예수 운동의 다양성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 초기 기독교의 지형을 이루는 세 개의 세력들은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바울에서 예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되고 있다면, 갈릴리와 시

---

[67]오강남, *또 다른 예수* (서울: 예담, 2009), 15.

[68]소기천,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7.

[69]Ibid., 138.

[70]Ibid., 141.

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Q에서는 민중의 동반자인 '아담의 아들'과 떠돌이 현인 wise man으로 이해되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도마복음 공동체에서 예수는 깨달음의 스승Gnostiker으로 이해되었다.[71]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수용되면서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던 초대교회 소종파 운동 공동체들이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것은 제국을 통치할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황제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 하나의 성서'를 요구했다. 이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였다. 특별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Athanasius는 Arius 파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신약 27권의 정경화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당시 산재해 있던 여러 공동체의 문헌들이 일부는 정경으로, 일부는 이단서로 분류되었다. A.D 367년 그는 자기의 신학적 판단기준에 따라 '이단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책들을 파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마도 이집트의 도마복음서는 이 때 지하로 숨어들어야만 하는 박해를 당했을 것이다[72]. 로마제국의 통치적 종교이데올로기와 부득이 하게 정경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회중교회 중심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졌다.

[71]김명수, 46.

[72]오강남, 16.

바울에 의해서 해석된 그리스도만을 기독교 유산으로 갖고 있다면, 대안교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있어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복음은 '니케아에서 갈릴리로from Nicaea to Galilee'로 돌아가야 한다.[73] 황제의 종교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억눌린 자를 위한 종교로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역사에서 로마 중심으로 교리화된 로마세계의 도시 중심의 바울 회중교회, 갈릴리와 시리아 중심의 Q 공동체, 이집트의 도마공동체를 폭넓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운동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을 폭넓게 통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이기도 하다. 로마 세계의 도시 중심의 바울의 회중교회는 역사적 예수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가치로 받아들이려 할 때, 한계를 드러낸다. 오히려 Q 공동체 운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천을 발견하는 넓은 지평을 찾을 수 있다.

Q 복음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해주고 있다. 예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등적 관점에서 대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병자들의 치유와 밥상공동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74] 예수는 병자들이나 정신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유해주는 것과 사회적 약자들과 밥을 함

[73]김명수, 50.

[74]Ibid., 54.

께 나누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하고 있다고 선포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이었다. 갈릴리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기존의 세계질서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대안적 삶의 교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Q가 보여준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적 비전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계층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그들에게 의해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한 소외된 민중의 치유와 상생공동체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75]

결국 대안교회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삶의 자리는 신학적 사고와 방향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규정한다. 역사적 삶의 자리를 벗어난 신학은 개념화되고 교권화, 교리화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향해 대안이 되지 못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된다.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선택해 왔던 제도교회의 자리에서 역사의 예수와 Q 공동체가 살았던 삶의 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대안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다. 역사의 예수를 따랐던 Q 공동체가 추구했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대안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 주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리에 대한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삶을 뒤쫓는

[75]Ibid., 75.

‘따름’의 문제로 전환하게 해준다.

2. 역사의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이었나? 대안교회 공동체가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때, 이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의미를 가지며, 영토라기 보다는 다스리는 주권에 본뜻이 있다. 어떻게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화 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로마제국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 예수가 펼친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로마제국과 유대정권의 탄압과 착취로 망가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세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계였다. 우리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이 같은 논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누가복음 13:31-34에서 예수는 헤롯을 향해 “가서 그 여우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 정권에 대한 예수의 강한 반발과 저항의지를 볼 수 있다.[76] 우리는 예수의

[76]송기득, 111.

십자가 처형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사형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즉 반체제적인 혁명운동이었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교의 속죄론으로 해석되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로서의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살인죄나 신성모독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로마제국의 가장 잔혹한 정치적 처형으로서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자격이 없었다.[77]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경제적 의미는 철저한 소유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태 20:1-15)'와 '달란트 비유(마태 25:14-30)', '열 므나 비유 이야기(누가 19:11-27)'에서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경제적 성격이 드러난다. 예수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적어도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 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데 본뜻이 있었다.[78] 우리는 역사의 예수가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이유를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부모나 형제, 집과 땅과 고향을 떠나 시골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떠돌이였다. '여우도 굴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무소유의 떠돌이 삶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밥상공동체다. 그의 밥상 공동체에는 세리, 창녀, 여성,

[77]Ibid., 137.

[78]Ibid., 140.

어린이, 그리고 이방인도 함께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밥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천으로서 화해와 평등, 평화의 현실적 자리였다.

예수님 당시의 민중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억압으로 인해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현실의 고난을 일으키는 이러한 억압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억압은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종교적인 억압을 일으키는 유대교의 정결법과 권위와 맞서게 된다. 특별히 종교적인 대립에 있어서 예수와 유대인은 가장 격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예수는 안식일 법을 중심으로 바리사이 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종적인 예수의 선언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마태12:8; 누가6:5; 마가2:28).' 고 하였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종교 당국과 억압받는 민중의 사이의 구분을 확연히 하면서 예수가 어느 편을 지지하는 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문이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교적 측면은 '성전 숙청사건' 에서 대립 각이 분명히 세워졌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79] 역사의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 숙청사건을 감행했다. 그들

---

[79]Ibid., 147.

을 이기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숨겨진 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도전이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악의 본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체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공언하였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마가 13:2). 우리가 주지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는 심각했다. 상업자본가나 자산가들은 성전 은행에 예금하고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성전 화폐로 환전하면서 2.1%-4.2%의 프리미엄을 붙였다. 환전상의 이익은 사제들과 나누었다.[80] 이처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성전 숙청사건이 갖는 의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세력과 로마당국에 맞서 예수는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다. 공생애 초반에는 시골 중심으로 카리스마를 갖고 메시아 운동을 펼쳤는데,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밥상 공동체에서 보듯이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다. 역사의 예수가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이 대안 교회 공동체의 헌장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대안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같은 지향점을 같이 하면서 혹독한 역사의 저항을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의 저항이란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악이요, 예수 운동의 입장에서는 악의 실체요, 우리가 맞는 현실에서

[80]Ibid., 148.

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를 파악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Q 공동체이다. 이들이 전해 준 Q 자료는 역사의 예수의 정신과 희망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Q 6:20-21 The Beatitudes for the Poor, Hungry, and Mourning[81]

20 … And [rais]ing his [eyes to]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poor, for God's reign is for [you]. 21 Blessed are [you] who hunger, for [you] will eat [your] fill. Blessed are [you] who [mourn], [you will be consoled].

가난과 배고픔, 우는 자의 삶의 자리가 관심의 대상이며 축복의 길임을 선포한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차적 수혜자인 것이다. 그러면 역사의 예수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가난과 배고픔, 우는 자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관문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Q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다가서게 된다. 그들이 뿌리내렸던 역사의 자리가 곧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규정한다. 전승사적으로 가난과 배고픔, 우는 자들을 복음 수혜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같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토대로 삼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

[81]John S. Kloppenborg, *Q, the Earliest Gospel* (Louisville, KT: Westminster John Know Press, 2008), 125-126.

3. Q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그리고 전승주체는 누구였는가? 대안교회의 패러다임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Q 의 전승집단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들은 어떤 계층이었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따랐는지 묻게 된다. 왜냐면 역사적 예수의 어록을 전승해 준 집단은 전승집단으로서 역사적 예수의 삶과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역사적 예수의 어록을 전승하는 집단 주체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자리와 역사적 예수의 삶의 자리가 깊이 교감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어록이 그들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Q 가 전해준 역사적 예수의 삶은 Q 공동체의 사회사적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Q 공동체가 전해준 카리스마를 가진 떠돌이 예언자 예수의 모습은 곧 그들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전승집단이 떠돌이 예수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전승주체집단으로 설 수 없게 된다. 즉 전승은 전승주체와 text가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다.

G. Theissen은 예수의 과격한 말씀들을 전승했던 공동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전승에 일치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82] 이에 따르면, Q 는 사회적으로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부랑자 또는 떠돌이 집단이었을 것이다. Q의 전승자들은

[82]김명수, 108.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아노미적anomic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운동에 가담했을 것이다. 뿌리를 잃어버린 떠돌이 집단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주체적 참여자가 된 것이다.

G. Theissen은 Q의 사회적 관계를 세 가지 사회학적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구걸행위가 Q의 예수운동에서 떠돌이 카리스마적 예언운동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 생태학적 측면에서 볼 때, Q 전승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지역에서 생겨났다. 셋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시리아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83] 다시 말하면 Q 의 전승집단은 임박한 세계종말을 기대했던 무소유의 카리스마를 가진 설교자들이었다. 역사적 예수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어록에서 무소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무소유적 삶이 역사의 예수의 무소유적 삶을 담는 현실적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Q 에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주님들의 염려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날품 꾼, 극빈자, 노예, 농노, 소농 등 팔레스타인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소수자 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

[83]Ibid., 109.

Q 6:22b-31; Free from Anxiety Like Ravens and Lilies[84]

22b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are to eat, nor about your body, with what you are to clothe yourself. 23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than clothing? … 29 [So]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are we to eat? [Or:] What are we to drink? [Or:] What are we to wear? … 31 But seek his kingdom, and [all] these shall be granted to you.

Q 공동체는 하루의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나 최소한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무소유의 떠돌이 예언자 집단이었을 것이다. M. Sato는 전승집단에 대한 다른 견해를 주는데, Q 공동체는 떠돌이 설교자들과 각 지역의 공동체로 이중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떠돌이 예언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본다.[85] 이처럼 Q 공동체는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예수와 가장 근접해 있었다. 시간적으로도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이 AD 70년 이후에 작성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 유대전쟁의 참상이 반영되지 않은 Q 복음서가 시간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가깝다. 시대적으로는 바울의 회중교회 운동과 비슷하지만, 장소와 문화에 있어서 Q 공동체만큼 역사적 예수에 가깝지는 못했다. Q 공동체는 예수가 살았던 갈릴리와 시리아 시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바울의 회중교회는 헬레니즘 세계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Q 공동체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떠돌이 카리스마 설교자들이

---

[84]John S. Kloppenborg, 137.

[85]김명수, 112.

었다는 것은 역사적 예수와 닮아 있다. Q 공동체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예수가 살았던 삶과 일치한다.

Q 공동체의 예수운동은 세 개의 중요한 범주를 갖고 있는데, 축귀사건 Exorcisms과 치병사건Healing 및 밥상공동체 사건table fellowship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안교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제공해 준다. 특별히 밥상공동체는 대안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Q 공동체의 주체들을 알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소외계층이었던 'Ochlos'이다. Q 민중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길거리나 들판, 시장바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다. Q의 Ochlos는 예수가 전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배경을 형성한다. 사회적 약자요 소수자인 Ochlos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오히려 주체가 된다. 특별히 Q의 민중은 예수와 Q 공동체의 떠돌이 카리스마적 예언자들을 귀신을 몰아내는 '축귀자'로 받아들였다[86]. 즉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억압의 현실을 악마의 세력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Ochlos가 겪는 억압의 현실인 악마에 정면 대응하는 Q 공동체의 떠돌이 예언자들을 만나게 된다. 축귀 사건의 악마가 상징하는 것은 소수자로서 겪는 억압의 현실이다. 이 억압의 현실은 역사적 예수와 Q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다뤄진다.

[86]Ibid., 193.

이것은 떠돌이를 대표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역사적 예수의 삶을 가장 잘 전승해 줄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안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안 교회가 어떤 삶의 자리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대안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무소유를 지향해야 한다. 역사적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자리를 갖는 다는 의미이다. 단지 대안교회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근본 토대로 삼는 다는 예언자적 결단과 삶의 실천에 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역사적 예수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단지 그의 가르침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이민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면서, Q 공동체가 주는 단서는 무소유의 떠돌이 집단 즉 사회적 약자가 복음 전승의 주체라는 사실이었다. 제도화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구조를 갖게 된다. Q 공동체는 복음 전승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준다. 목회자와 교회 엘리트 중심의 이민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된다.

역사적 예수의 삶을 잘 드러내는 주기도문의 재발견은 예배 갱신의 이정표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서 장로교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민교회는 사도신조를 중

요한 예배 예전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사도신조는 역사적 예수 전승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적 그리스도 전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신조의 초기형태는 아래와 같다.

>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 무덤에 묻히사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 가셨습니다.
>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 아버지 오른 편에 앉혀지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87]

여기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회상은 고난과 십자가와 매장 당했다는 고백뿐이다. 그리고 모두 수동태로 되어있다. 이처럼 사도신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에 관한 종교religion about Jesus는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에게서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면모와 체취는 사라지고, 그는 일종의 종교적 제의 시스템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88] 이것은 교회사에서 가현설Doketimus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수난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칼케톤 공의회(451년)에서 예수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을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교회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신

[87]김명수, 48.

[88]Ibid., 49.

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축소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예배 의식의 중심에 신앙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도신조가 받아들여진 것이 그 증거이다. 예배의 중심에 주기도문 보다는 사도신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전승사적으로 교회공동체가 역사적 예수보다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공동체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지평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Q복음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주기도문은 세 개의 전승이 전해 내려온다. 마태복음(6:9-13)과 누가복음(11:2-4), 그리고 디다케Didache 전승이 존재한다. 디다케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전승을 대부분 이어받았고, 다만 마지막 송영인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덧붙였다.[89] 마태의 전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 관행에 대한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가 전승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Q가 전해주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90] 이 여섯 가지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때 Kairos가 가까이 왔고, 이것은 역사적 예수가 전한 설교의 핵심을 이룬다. Q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도래의 징

[89]이성덕, *이야기 교회사* (파주, 경기: 살림, 2007), 186.

[90]김명수, 250.

표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디다케'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세 번 기도하라고 가르쳤다.[91] 사도적 전승에서 주기도문이 예배 예전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세례자 교육이었다. 하지만 주기도문이 언제부터 공중예배에 받아 들여졌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다가 6세기 중반에 들어와 주기도문은 복음서와 신조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92]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사도신조 다음에 위치해 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세례 예전에서 주기도문 낭독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개혁교회는 주기도문을 성만찬 예배에서 성만찬을 준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설교예배에서 마침 축복 전의 기도로, 세례나 혼인이나 안수를 할 때에 축복기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용도는 사도신조에 비해 예배예전과 성만찬, 세례예전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기도문은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의 떠돌이 무소유 예언자의 삶이 담겨있다. 또한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동환 교수는 주기도문으로 교독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예배에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음은 문교수의 주기도문 교독이다.

[91] 이성덕, 189.

[92] Ibid., 190.

사회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회중: **우리 옆에도 계시는 어머니와도 같으신 하느님**

사회자: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며

회중: **당신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사회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회중: **이 세상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중: **우리 모두 당신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사회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회중: **아무도 일용할 양식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사회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회중: **우리 주변에는 갖가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사회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다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93]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전해준 초기 그리스도교 Q 공동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빈곤한 사회 환경 속에서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빈곤의 현실은 단지 Q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사회적 약자, 떠돌이, 민중의 일반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빈곤의 현실을 Q는

[93]문동환, http://cafe.daum.net/moontonghwan (accessed October 1, 2009)

그대로 보여준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삶의 단위가 미래가 아니라 그날 하루가 표현하듯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Q 공동체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종말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통해 드러난 Q 공동체의 삶과 그들이 추종했던 역사적 예수의 삶 안에서 이민교회 운영체계의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

## 제4장 정의적 질문(Justice Component)

1. 교회가 서 있는 세계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그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신앙고백을 요구하는가? 우리의 고백 행위에서 세계와 역사의 어떤 모습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빈곤의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세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올바로 보고 정의롭게 인식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지극히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창세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표현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상은 그 본래의 창조된 모습이 왜곡되었다. 철학적으로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되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대단하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특징 중의 하나로 세계화Globalization를 들 수 있다.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로 삼아 발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의 패권과 지배의 영향력에 역사적이고 존재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신제국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을 주력부대로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를

해체하고 세계시장을 단일하게 통합시키는데 그 요체가 있다.[94]

신자유주의는 강자와 기득권 중심의 논리이다. 무한 경쟁이라는 자유무역 승배자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정당화된 착취수단이다. 무한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 경쟁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제 1세계 국가들이 가진 인프라와 금융 자본과 제3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킨다면 결과는 너무 분명한 것이다. 명분은 무한 자유 경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착취와 억압의 현실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화고 있다.

세계는 가난하다. 그러나 이 가난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한 나눔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을 세계화 하는 지지자로서 부요한 자본가들과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불평등과 곤궁을 증가시켜왔다.[95] 자본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Wall st. 투자회사의 CEO는 세계화의 비호아래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다. Merrill Lynch의 전직 CEO였던 John A. Thain은 2007년에 $83 million를 가져갔고, 다음 순위로 Goldman Sachs CEO였던 Loyd C. Blankfein $54 million을 받아 챙겼다. 2009년 Goldman Sachs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94]박세길, “극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Ⅱ)”, *민* (1999. 12), 82.

[95]Nielsen Kai, *Globalization and Justice* (New York, Amherst: Humanity Books, 2003), 13.

평균 임금은 $800,000이었다.[96] 실제로 이런 천문학적인 부의 축적은 대단히 단시일 내에 이뤄진 것인데,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자본의 세계 지배인 세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민간기업가들은 세계화지상주의자들이다. 5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지구 전체 생산의 52%를 차지한다. 이들 500개 기업 중에서 58%는 미국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단지 전세계 노동력의 1.8%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이 축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합한 것보다 크다.[97] 2007년 통계에 따르면, 1,200만 명의 백만장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은 32조 달러에 이른다.[98] 또한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인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 57퍼센트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99] 세계의 풍요는 균형을 잃었다. 북반구가 부요 해지는 만큼 남반구는 가난해 졌다. 1세계가 풍요로운 만큼 제3세계는 기아와 가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 물의 양이 한 방울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구의 생산된 풍요는 이동할 뿐이다. 이제 세계화를 배경으로 그 속도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1913년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국가와 가장 가

---

[96]"Wall St. vs. Sports: A Look at the Top Paychecks." *The New York Times*,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09/09/18/wall-st-vs-sports-a-look-at-the-top-paychecks/(accessed October 5, 2009).

[97]Jean Ziegler,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양영란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08), 248.

[98]Ibid., 41.

[99]Ibid., 36.

난한 국가의 비율은 11:1이었다. 그러나 그 격차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1950년에는 35:1, 1973년에는 44:1, 그리고 1972년에는 72:1로 그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30억의 사람들이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20억의 사람들이 빈혈로 고통 받고, 제3세계의 많은 민중이 짧은 생애를 살고 있다.[100]

세계화 피해자들의 가난은 대단히 심각하다. 사회시설의 악화는 수 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유엔 회원국 191개국 중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려 1억 1,300만 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62%는 여자 어린이다.[101] 유엔아동기금UNICEF가 제시한 계산서를 보면, 전 세계의 6~15세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해당 국가들은 10년 동안 총7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액수는 미국인들이 해마다 화장품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액수 총액에도 못 미친다. 이 액수는 또한 유럽인들이-2004년 유럽 연합의 15개 회원국- 해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쓰는 돈보다 적은 액수다.[102]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해마다 영양 결핍이나 각종 전염병,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이들 중에서 50퍼센트는 지구 상에서 가장

---

[100]Nielsen Kai, 33.

[101]Jean Zeigler, 95.

[102]Ibid., 95.

가난한 6개국에서 발생한다. 희생자들의 90%가 남반구 국가들의 42%에 집중되어 있다.[103] 제3세계의 122개국에는 전 세계 인구의 85퍼센트가 밀집되어 있으나, 이들 나라의 국제무역 거래 액은 전체 무역 거래 액의 25퍼센트에 불과하다. 8억 5천만 명의 성인이 문맹이며, 학령 기 아동 중에서 3억 2,500만 명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4억 명이었으나, 현재는 8억 5,400만 명으로 늘어났다.[104]

제3세계의 가난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사회 정치적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게으름과 같은 윤리적인 생활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착취의 형태를 확인해 본 연후에 논의의 진척이 있을 것이다. 가난의 원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가난의 원인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과 분배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의正義의 문제이다. 팽창하는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식량의 증진을 가져왔고, 만약 과학적 진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인다면, 식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는 경작 가능한 비옥한 땅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frican

[103]Ibid., 35.

[104]Ibid., 36.

농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쇠퇴해 왔다.[105] 산업화industrialization 때문에 농부들은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농업을 위한 경작지는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atin America는 *latifundia* 시스템을 갖고 있다. Latin America 전체에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 40%에 달한다. 역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전체의 1%의 가문이 전체 경작지의 50% 를 관할하고 있다. 이러한 농토 엘리트 계층은 Latin America 에서 믿을 수 없는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은 가난하고, 조직화되지 못하고, 의존적인 소작농을 통제하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106]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난의 원인은 자본에서 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의 기축통화는 금에서 미국의 달러로 이동했고, 이와 발맞추어 미국의 힘은 두드러지게 되었다.[107] 제3세계 국가들은 빠르게 산업화 되었는데, 이는 1세계 자본의 공전궤도the capitalist orbit에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북반구 선진 산업 국가들이 제3세계 122개국의 개발을 위해 지원한 돈은 580억 달러였다. 같은 해 제3세계 122개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북반구 은행에 포진한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에게 5,010억 달러를 지급했다.[108]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

---

[105]Nielsen Kai, 228.

[106]Ibid., p.228.

[107]Ibid., 231.

[108]Jean Ziegler, 79.

농업 자급 율은 급격하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109] 1970년대 무렵,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외채 총합은 6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001년, 외채총액은 7,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부채 때문에 지난 30년간 해마다 평균 240억 달러가 채권자들에게로 송금되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원자재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벌어들인 돈의 30~35%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채 상환에 할애해야 했던 것이다.[110]

예산에서 사회 부분 비용과 부채 관련 비용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111]

| 국 가 | 사회 부분 비율 | 부채 관련 비율 |
|---|---|---|
| 카메룬 | 4.0 % | 36.0 % |
| 코트디부아르 | 11.4 % | 35.0 % |
| 케냐 | 12.6 % | 40.0 % |
| 잠지아 | 6.7 % | 40.0 % |
| 니제르 | 20.4 % | 33.0 % |
| 탄자니아 | 15.0 % | 46.0 % |

[109]Nielsen Kai, 232.

[110]Jean Ziegler, 92-93.

[111]Ibid., 94.

| 나카라과 | 9.2 % | 14.1 % |
|---|---|---|

출처: CADTM

이같은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신 자유주의를 표방한 세계화는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소위 1 세계의 풍요와 부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계속적인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두 부요하게 될 것이라는 신화를 제대로 볼 때가 되었다. 지구의 자원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무한한 소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살펴보자.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실시된 지 20 년이 흘렀고,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Paul Mason 은 다섯 가지 신 자유주의 경제의 명백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들의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1974 년부터 2004 년까지 미국 전체 가정 가운데 5 분의 1 에 해당하는 최하층 사람들의 소득은 2 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기에 두 배로 늘었지만 지금은 2.8% 밖에 늘지 않았다.[112] 둘째, 영 미식 경제가 고임금 구조에서 심각한 채무 구조로 바뀌었다. 오늘날 미국 평균 남성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70 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1979 년, 개별 가구의 채무는 미국

[112]Paul Mason, *탐욕의 종말*, 김병수 역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9), 216.

국내총생산의 46%였지만, 2009 년은 98%이다.[113] 셋째, 기업의 이익이 금융권으로 지나치게 흘러 들어갔다.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 규모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세 배에 이르지만, 1980 년대는 같은 수준이었다. 금융 자본력의 성장은 전 세계의 자산 거품을 증대시켰다.[114] 넷째, 개인의 경제 환경이 점점 불안해지고 게다가 사회적 자본까지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늘어났다. 다섯째, 신 자유주의는 과거에는 사회적인 공동소유였던 것을 상품화 했다. 2003 년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인도의 전통 빵인 차파티용 밀가루를 특허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115]

세계화의 폭력 속에서 많은 민중이 고통 받고 있다. 새로운 세계와 대안이 절실하지만, 신 자유주의의 몰락 속에서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금융 파생상품 거품의 위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글로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달러 위주인 글로벌 지폐의 신용위기이다.[116] 그러나 아직까지 G7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붕괴된 신 자유주의 금융체제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잇는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신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신

---

[113]Ibid., 217.

[114]Ibid., 217.

[115]Ibid., 218.

[116]Ting Bin Zhang,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 중국과 미국의 힘 겨루기*, 차혜정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9), 10.

자유주의를 대체할 일관되고 확고한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17] 그러나 전 세계가 현재 신 자유주의의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118]

우리는 지난 30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급격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을 겪으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의 신 자유주의의 탄생과 그 영향력과 폭력성을 지켜봤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자유시장의 확산, 세계화, 금융 산업의 지배력 강화였다. 정보기술 혁명은 21 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세계 노동시장의 확대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어서 1991 년부터 인도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했다. 갑자기 전 세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자본 중심으로 기울어졌다. 선진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같은 일부 산업화한 지역에 있는 9 억 6 천만 명의 노동자 말고도 자본이 고용한 15 억 명의 노동자가 또 있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급격하게 늘어난 또 다른 10 억 명이 있다. 전 세계에서 노동이 자본보다 두 배나 더 많아진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19]. 현재 금융계에서 말하는 196 조 달러의 금융자산은 세계 총 생산량의 4 배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나타낸다[120]. 이것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미래 수익과 국가 채무에 지불될 미래 세금에 대한

---

[117]Paul Mason, 235.

[118]Ibid., 236.

[119]Ibid., 250.

[120]Ibid., 270.

소유권이다. 미국 금융 파생상품의 거품이 유럽보다 더 심각 한데서 예를 찾을 수 있다.[121]

영국과 미국 주도의 신 자유주의의 붕괴는 중국을 새롭게 등장 시켰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제조 등 산업 발전에 소홀하고 금융 폭리만을 좇아 달러를 남발하고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해 타국의 재산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122] 중국은 유럽, 미국과 문명 경쟁의 중요한 라이벌이자 발전이 빠른 신흥 경제대국으로서 이미 세계 경제 리더의 유력한 도전자가 되었다.[123] 아마도 중국이 세계를 경기 침체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국가일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내 노동자들을 주요 소비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중국은 원하기만 한다면, 혼자 힘만으로도 파산한 세계경제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은 국제통화기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저울의 추가 중국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의 비위를 거슬릴 수 없다. 중국 내의 민주주의, 타이완, 티베트, 기후 변화로 중국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124]

---

[121]Ting Bin Zhang, 191.

[122]Ibid., 7.

[123]Ibid., 193.

[124]Paul Mason, 271-2.

이처럼 2008년 10월에 시작된 신 자유주의의 붕괴는 신흥시장의 거인들을 더 큰 경제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민주화 같은 요구는 힘을 잃었다. 반면에 그들 나라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지적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대량의 떠돌이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향을 잃고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의 모든 억압과 폭력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 전체 노동 인구의 60퍼센트는 농부들이다. 앞으로는 특허 사용권을 지불해야 하는 유전자 변형 종자에 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125] 오늘날 전 세계에서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35명 중 한 명은 남의 나라로 떠난 이민 노동자다. 1970년에 이민 노동자들이 출신 국가로 송금한 돈은 20억 달러였다. 1993년, 이 액수는 930억 달러로 늘어났다.[126] 이것이 교회가 뿌리 내려야 할 현실이다. 경제 부흥의 혜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된 부요한 그룹으로 노력할수록 경쟁만 치열할 뿐 대다수는 떠돌이 노동자로 전락한다. 교회는 이런 맘몬니즘의 도전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교적 맘모니즘은 심각하지만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

[125]Ibid., 277.

[126]Jean Ziegler, 95.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이민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에 미치고 있는가?

세계화는 이민교회에게 그 특징을 그대로 심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간 사이즈의 교회가 사라지고, 적은 규모의 미자립 교회들과 초대형 교회로 양극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Staten Island의 200명 규모의 모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인근의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하였다. 이런 현상은 보편적이다. 교회도 무한경쟁 속에 빠져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쟁은 공평하지 않다. 이민교회들 안에도 1세계와 3세계가 존재한다. 특별히 교회 내의 교육환경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구분은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화의 가치가 일반 교인들의 판단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같은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미주 이민교회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자 세계화의 도전이다.

세계화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반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종교현상 중의 하나가 남반부 기독교Southern Christianity의 오순절화이다.[127]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127]김상근, "해방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오순절 시대인가?(2)" *기독교사상* No.575 (November 2006), 162.; "Pedmo Moreno의 발표에 의하면 1980년 초반 1,860만 명에 불과했던 라틴아메리카 오순절 교인 숫자는 1990년 말 기준으로 무려 6,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재인용, 김상근, 160.).

중심 한 남반부 기독교 민중들은 해방이 아니라 토착화된 오순절 신앙을 통해 '물질적 축복'을 선호하는 종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28] 하지만 이와 같은 오순절 운동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화의 억압을 오히려 근본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재적 체제를 고착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운동도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난은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반영한 언어이고, 소외는 문화적 억압에 대한 언어이다. 남반부 기독교 안에서 가난과 억압에 대한 해방신학적 방안과 오순절적 방안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가난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오순절적 접근 즉 사회적 약자로서 높은 차원의 영적인 힘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개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방신학에서 그 동안 시도했던 마르크스 철학을 신학함의 중심으로 삼는 정치 경제 중심의 접근에만 치중해선 안 될 상황을 맞고 있다. 해방신학 진영에서 오순절적 영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가난의 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가난이든지 문화적 소외이든지 좀 더 현실적이면서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문화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적 접근을 찾는데 있어서 계층별 다양한 접근이

---

[128] 김상근, "해방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오순절 시대인가?(1)" *기독교사상* 574 (November 2006), 208.

필요하다. 그와 같은 현실적 인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정용 교수의 '변두리론 Marginality[129]' 이 있다.

변두리론에 맞춰 본 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계층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한다. 이것은 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Summit 타운에 정착한 Korean American은 이미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직업 분포도에서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경우에 1.5세나 2세인 남편과 1세인 부인의 분포도가 높은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30] 그러나 사회 문화적인 자아실현 측면에서 본다면 소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인종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외는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이정용의 '변두리'론은 다양하고 다층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소외의 측면을 잘 해명해 주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남성이 가정에서는 종종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도적이고 중심적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은 가정에서는 변두리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인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백인계 미국인이 인종적으로는 중심부 그룹에 있을

---

[129]'변두리론' 이란 말은 본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임을 밝혀둔다.

[130]필자 교회와 관련된 6가정 중 이민 1세 가정은 3가정이다. 이 중에서 이중문화 가정이 1가정이었고, 4가정은 1.5세나 2세의 남편과 이민 1세의 부인으로 구성된 가정이었고, 직업분포도도 금융계와 같은 전문직종이 50%이상을 이루었다.

지라도, 경제적으로 모든 백인계 미국인이 중심부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가난하고 실업 상태에 있다면, 백인일지라도 변두리 그룹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131] 이것은 다층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외적 위치를 명확하게 해명해 준다. 백인의 중심적 문화 위치와 관련해서 한인문화는 변두리이다. 한인문화 안에서 한인교회는 불교사원이나 천주교에 대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한인교회 안에서 대형교회는 중심부이고 30명 이하의 소형교회는 변두리이다. 보수적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교회 문화라면, 소형교회 안에서 교역자는 중심부이고 평신도이자 여성들은 변두리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고정되어 있는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적이고 상호 관계적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규정하는 요소는 언제나 관계성 안에서 상대적이다. 이것은 각각의 상호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중심부와 변두리가 다르다는 말일 것이다. 하늘뜻교회가 미자립하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교인들과 맨하튼의 백인 홈리스를 비교해 본다면, 인종적으로는 교인들이 변두리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이 중심부이고 홈리스가 변두리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교수는 변두리에 서서 볼 것을 주장한다. 변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 볼 때 새롭고 신선한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32] 변

[131]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5), 32.

[132]Ibid., 30.

두리에 대한 강조는 중심부와 변두리의 관계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중심, 즉 더 이상 변두리를 억압하는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변두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새롭게 각성된 중심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두리에 서는 용기와 결단이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개인 스스로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회가 그 변두리에 먼저 서서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변두리로서 소외를 경험하는 본 교회 회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문화적 변두리에 서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성에서 본 교회는 중심이고 그들은 변두리이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으로 변두리와 중심 모두 자유로운 비억압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참여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난과 이와 동반하는 소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참은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는 교인들도 해방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압과 소외의 형태가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변두리는 중심을 해방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 교회는 중심을 버리고 변두리로 비켜서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의 덫에 걸린 세상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한걸음이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세계화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 전혀 새로운 출발이 요구된다.

본 교회는 2006년 9월 첫 주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설립 동역자

없이 목회자 가정과 새로 입교한 한 가정이 출발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려운 미래를 예고한다. 이처럼 함께 개척하는 교인이나 다른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 없이 시작하는 교회에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첫째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립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며[133] 이에 거침이 되는 현실상황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선교 공동체를 체현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둘은 서로 충돌한다. 미자립 교회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우선적인 과제를 두고 이것에 교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관한 심각한 물음이다. 아니면 성장 위주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해답은 공동체 운동에 있다고 판단된다.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협력과 일치를 향해 세계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 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 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일치에 있을 것이다. 장소를 빌린 미국교회가 교회 일치를 강조하는 United Church of Christ와 American Baptist Church 교단 소속일 뿐 아니라, 대단히 개방적이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이다. AA 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선교 단체

[133] 그리스도인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Cf. Richard John Neuhaus, *Freedom for Ministry* (Grand Rapids: Eedrmans, 1992), 11.

들이 본 교회가 소속된 미국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교회 내에 위치해 있는 Bridge Outreach inc.와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홈리스 사역만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고난받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 중심의 연합운동인 것이다. 이 같은 교회 일치의 흐름이 본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본다.

본 교회는 자체적으로 Outreach를 진행할 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십일조 예물의 삼분의 일을 구제와 나눔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적립하지만, 기본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인적자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협력사역co-ministry에 있다. 다행히 우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Christ Church 내에 Bridges Outreach inc.가 1988년부터 홈리스 사역을 해오고 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홈리스 사역에 대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협력사역에 대해 성서적으로 고찰하고, 본 교회와 Bridges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려고 한다.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핵심적 인물 중의 하나인 Priscilla, 그녀의 남편인 Aquila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동역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문안인사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들 부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롬 16:2).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초 로마제국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이 공동체

를 이루며 살았는데, 특히 알렉산드리아에 200,000명, 로마 시에 50,000명이 살고 있었다. 로마 시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회당의 조직화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할 때, 이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다.[134] 그렇기 때문에 Priscilla와 Aquila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 회당에 소속되어 있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거친 논쟁이 붙게 되자, 로마황제 Claudius는 당사자들을 추방하게 되는데, 이 때가 AD 49년이었다(행18:2).[135] 쫓겨난 Priscilla와 Aquila는 고린도로 이주했고,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만나게 된다. 이들은 바울에게 직업을 주었다. 왜냐면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바울은 5세에서 13세 사이에 초등학문을 배울 때 직업적 기술도 같이 배웠는데 tentmaker였다. 이것은 유대적 전통이었다.[136]

고린도에서 Aquila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 부자인지 가난한 층에 속해 있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몇 명의 천막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바울이 Aquila의 집에서 기거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는

---

[134] James S. Jeffers, *The Greco-Roman World of the New Testament Era: Exploring the Background of Early Christianity*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14.

[135]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1992 ed., s.v. “Aquila.”

[136] George T. Stokes, *The Expositor's Bible: Acts* (Rio, WI: Ages Software inc, 2002), 268.

않았다. 일년 육 개월 후에 Aquila 부부는 에베소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동역자로 활동하게 된다(행18:11). 그들의 집에서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 부부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 부부의 재정적 후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AD 54 년 로마 추방의 원인이 되었던, 황제 Claudius 의 죽음 이후인, AD 55-56 년 사이에 이 부부는 로마로 되돌아 오게 된다[137]. 이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이동이었다. 바울의 로마 압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부부의 집은 교회로 개방되었다. 이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은 로마서 16 장으로 마무리 하는 바울 서신에서 헌신자의 일 순위로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다(롬 16:3).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천막지기로 일을 하였고, 에베소와 로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과 Priscilla 와 Aquila 의 동역관계 때문이었다. 로마서 16 장에서 바울은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my fellow workers, συνερΎοὐς [138])" 로 소개하고 있다.

---

[137]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1992 ed., s.v. "Aquila."

[138] Barbara Aland and Kurt Aland ed.,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Germany: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438.; Strong's Concordance Number #4904 (cf. Jay P. Green, Sr., The Interlinear Greek-English Bible vol.4 (Hendrickson Publishers, 1984), 447.) ;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 13번 나오는데, KJV에서 fellowlabourer 4, helper 3, fellowhelper 2, fellowworkers 1, workfellow 1, labourer together with 1, companion in labour 1 로 각각 번역되었다.

미주 한인교회 내에 동역(Fellow Work,同勞)에 관한 논의와 실험이 한창이다. 하지만 한계점도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작은 한인 공동체와 이미 홈리스 사역에서 많은 자원과 경험을 축적해 온 사회봉사 기관과의 협력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과 Priscilla 와 Aquila 사이의 동역 관계는 좋은 모델임을 이미 살폈다. 바울은 이들 부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후기 사역을 행하는데 있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시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각각 처해진 조건과 처지를 협력함으로 복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교회는 인적자원과 가난한 자에 대한 선교적 열정을 갖고 있고 신앙적 성숙을 목표로 한다. Bridges inc.는 많은 경험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Outreach 사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목표로 한다. 더군다나 이 둘은 한 건물 안에 위치해 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역 모델을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본 교회는 정의적 차원에서 교회분열의 결과로 생긴 교회가 아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일치 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군다나 미자립 교회의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이 구조적으로 에큐메니칼의 연대로 나가게 만든다.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은 언제나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교회의 한계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이다.

특히 본 연구자는 에큐메니칼을 위한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 자리'라고 믿는다. 사회 경제의 발전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는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세계화는 가난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처한 고난의 현장 안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의 가장 건강한 토대가 된다. 하나인 교회가 현실화되는 당위성은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 필연성을 얻게 된다. 에큐메니칼에 있어서 고난의 자리를 중심적 토대로 고난 받는 자와 연대하는 일례一例가 San Francisco에서 PCUSA 목사인 Glenda Hope가 시작한'San Francisco Network Ministries'이다[139]. 1972년 11월 다운 타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홈리스, 실업자들, 다양한 인종들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150개의 방을 가진 Ambassador Hotel을 개조해서 HIV/AIDS 환자들을 위한 shelter를 만드는 것이었다. 점차 많은 교단들이 동참하면서 사역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Roman Catholic, Presbyterian, United Church of Christ, Lutheran, Episcopal, and Methodist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운 타운의 소외된 사람들의 게토를 중심으로 교파와 인종을 넘

[139]Glenda Hope and Penny Sarvis, "We Are All Sparrows: Learning about, and from, San Francisco Network Ministries," *Church & Society* 86 (November/December 1995), 29-36.

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놀랍게 성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학함의 장소locus는 그 신학의 내용을 결정한다.[140] 이 말은 Dietrich Bonhoeffer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신학이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아닌, 감옥이었음을 상기시킨 신학적 명제이다. 여기서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 Bonhoeffer는 그의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강조했다. 이런 관점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자리를 낮은 곳에 가지도록 하며, 바로 이러한 실천의 장에서 신학은 현실과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른바 추방당한 자, 피의자, 혹사당하는 자, 힘없는 자, 억눌린 자, 조롱 당하는 자, 요컨대 고난 당하는 자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큼직한 사건들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다.[141]

에큐메니칼 운동의 네트웍은 이론적으로 하나님 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교회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선교'라 하며, 이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

---

[140]강성영, "하나님의 고난과 뒤따름의 의미," *기독교사상* 574 (October 2006), 76.

[141]Eberhard Bethge,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26.; 아래로부터의 관점은 틸리히의 그리스도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f. 김경재, *폴 틸리히 신학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77.

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142]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교회의 정체성은 교단이나 교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선교적 목적에 있다.

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에큐메니칼 운동의 현실적 양태인 네트웤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연대가 가능한 한인교회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역자로 세우고, 그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 교세의 크기나 교파, 계층적 차이 등을 극복하는 하부토대는 가난한 자들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현실적 연대에 있다.

[142]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역지침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1992), 80.

## 제5장 심리학적 질문(Psychological Component)

1.미주한인교회는 관계성의 원형Archetype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가? 공동체의 건강한 형성에 있어서 소통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반대로 단절disconnection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관계성connection은 어떻게 상처 입은 자아와 공동체를 치유하는가?

심리학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을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존재를 과거의 결과물로 진단하되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해 냈다. 건강하지 못한 근원적인 원인은 관계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관계성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논의의 주제가 되는 소통은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여는 틈새를 만들어 준다. 원활한 소통에는 다양한 이해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규정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주어진 관계성의 원형archetype에 따라 조정된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며 환경이다. 이 관계성은 우리를 규정하고 조정한다. 이 원형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도전 없이는 어떤 진보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David Abalos에 따르면, 관계성은 여 덟 가지 원형archetype을 가진다. 유출 emanation, 종속subjection, 중재자buffering, 고립isolation, 직접 교환direct exchange, 경계선적 통제boundary management, 불일치incoherence, 변혁transformation이 있다.[143]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인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는 다양한 원형으로 우리의 의식을 규정한다.

유출 원형은 관계성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원형이 주는 관계성의 영향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유출 원형은 신비롭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자에게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라틴 가족에서 여자에게 남편과 가족은 유출 원형에 속한다. 가족의 존재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무조건적이다. 유출 원형은 신비로운 능력으로서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권위를 가진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평신도의 자세가 유출 원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목회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설교, 축도, 성만찬 등은 평신도가 개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권위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서 성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이다. 대단히 신비로운 유출의 원형을 이루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종속의 원형은 힘에 눌리는 관계이다. 종속은 Vieques, Puerto Rico가 미군의

[143]David T. Abalos, *The Latino Family and the Politics of Transformation*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3), 14.

힘에 눌리는 것과 같은 관계 원형이다. 이 원형은 대단히 폭력적인 권위를 갖는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의 관계성이 종속의 전형적인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부교역자의 역량이 담임 교역자의 종속적 원형에 눌려 드러나지 못한다. 종속 원형 안에서는 어떤 공동사역도 이뤄지지 못한다.

가톨릭 국가인 라틴가정에서 대부모godparents는 일반적인데, 가정에서 중재자의 원형을 갖는다. 라틴가정에서 엄마가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나쁜 소식, 예를 들어 딸이 대학에 가길 원한다든지,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든지 하는 말을 할 때 풍성한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이 만찬이 중재가 된다.[144]

미주 한인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점심식사를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중재적 원형으로 사용해 왔다. 이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주어진 원형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관계적 원형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윤리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관계성이 어떤 원형적 유형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대화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뤄졌다는 결정은 경계해야 한다. 단절된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

[144]Ibid., 20.

한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대화와 소그룹 활동을 들 수 있다.[145]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소통의 통로로 내놓기 보다는 설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기 얘기를 준비거나 입장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이런 관계의 원형을 이해하면서, 심리학에서 관계가 상처 입은 개인의 인성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이 추구하는 대안 교회an alternative church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 내의 관계성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요건이다. 심리학적 논의의 주체인 개인적 관계성의 회복과정에 대한 고찰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교회의 관계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느낌과 감정이 관계성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생각과 이성적 판단이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 이성적 접근은 관계성에서 정보만 교환할 뿐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여는 이룰 수 없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권위에 익숙한 관계의 원형과 말씀 위주의 개신교 전통 문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적 접근은 대안교회의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건강한 관계성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

[145]Henri J. M. Nouwen, *친밀함*,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1), 99.

단절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성이 형성될 때, 그 안에서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신분석psychoanalytic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이고 심리학적 문제는 초기 엄마와 아기의 관계성에서 기원한다. 특별히 엄마가 아기에게 충분한 자기 만족self-sufficient과 독립성을 주는데 실패할 경우 아이는 건강한 자아와 자존감self-esteem을 형성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독립성과 자기 충족self-sufficiency은 한 인간의 성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146] 따라서 심리학적 발달을 이끄는 과정은 분리와 개별화individuation의 내적 성숙에 맞춰진다. 하지만 상처와 그 영향력은 관계성에서 발생한다. 특별히 부모와 어떤 관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상처와 치유의 역동은 큰 차이를 보인다. 관계성에서 기인하므로 관계성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핵심적 인식이다. 소위 ‘말하지 말고, 믿지 말고, 느끼지 말라’는 역기능 가정의 강요를 받은 사람들은 슬픔, 아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표현해서도 안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되었다.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들은 부정되었던 것이다.[147] 이런 상황에 부딪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이런 감정들을 부정해야만 했다. 이처럼 관계성은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이 된다.

---

[146]Jean B. Miller and Irene P. Stiver, *The Healing Connection* (Boston, MA: Beacon Press, 1997), 2.

[147]Donald R. Hands and Wayne L. Fehr, *성직자를 위한 건강한 영성,* 이정기 역 (서울: 예영미디어, 2002), 36.

이처럼 관계성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형식이며 방편이다. 그리고 관계는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회복된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는지 연구하는데 본 장의 목적이 있다.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는 경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적 성장을 일으키는지 살필 것이다. 이는 올바른 관계성이 인간의 내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관계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부터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공간을 열어 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화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대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직접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손의 움직임, 호흡, 눈물 등이 대화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느낌도 전달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화를 통해 드러난 언어에만 생각이 묶여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읽지 못할 때가 많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상징과 표징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를 단순한 기호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렇게 대화를 단순한 기호로 여길 때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관계의 생득적 원형이 개입되어서 대화는 더욱 어렵게 된다.

단절은 상대방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나쁜 상태로 버려지게 만든다.

청소년과 엄마의 대화는 자주 어긋나게 마련이다. 딸은 엄마에게서 단지 위로를 받고 싶을 따름인데, 엄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르치려고 든다. 딸은 더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는다. 서로 다른 원형 안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모습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의 단절은 대화 하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관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성숙되고 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관계 단절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관계성은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반면, 어떤 관계성은 파괴하고 상처를 준다. Ann과 Beth의 대화를[148] 통해 관계가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Ann은 25살의 공장 노동자이고 얼마 전에 직장동료인 Emily가 심각한 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직장 동료인 Beth에게 상의했다. Ann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Ann: Hmm.
Beth: Don't you want to?
Ann: Well...Well, yes... Well, maybe...
Beth: You sound hesitant
Ann: Me?
Beth: Would you rather not go tonight?
Ann: No. Yes. No... I just feel awful. I feel as if I want to run away from the whole thing. But how could I do that to Emily?
Beth: Me too. It's so frightening to hear about this.
Ann: Yes, that's right. It brings it home. It feels so close. This makes it feel as if it can

[148] Ibid., 25.

happen to me.

Beth: Maybe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I was just thinking the same thing. If we're feeling this scared, what must Emily be feeling?

Ann: Now I see.

Beth: What?

Ann: I think I was feeling it was selfish to be worrying about myself-how could I be scared when I should be thinking about Emily when she's facing this?

Beth: But we both just said how scared we were. Maybe that's just how it happens to anyone.

Ann: Well, it doesn't sound selfish to me when you say you're scared. Maybe it's okay...maybe that's really okay. But how terrible for Emily. How scared she must be…I really want to call her and go see her tonight. I'll feel better if I'm with her. I can just tell how awful it must be for her to be alone with these feelings.

Beth: She shouldn't be alone with this.

위 대화는 Ann의 두려움을 Beth가 어떻게 상호 동감하는지 잘 보여준다. Beth는 Ann의 느낌에 동감하면서, 그 슬픔을 자신의 느낌과 함께 말로 표현해 주었다. Ann이 눈물과 표정으로 표현한 것에 더해서 추가함으로써 Beth는 그들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감정과 인지 cognitive(느낌-생각)의 역동이다.[149] 동감이 온전한 인지로 나아간 것이다. 동감으로 Beth가 반응하고 이를 Ann이 받아들임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반대로 Ann은 Beth의 수용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느낌과 생각의 통합적인 통일은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동감할 수 있었

[149]Ibid., 25.

다. 여기에서 동감이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상호 동감은 서로를 치유하고 자라게 하는 길을 터준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열정zest, 행동화action, 지식knowledge, 가치worth,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150] Ann과 Beth의 대화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감정적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관계connection의 치유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의 상승은 필자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경험하게 된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눈물, 열정, 동감, 속마음 털어놓기 등이 이뤄지면 그 관계성이 깊어지는 경험을 한다. 반대로 지식만이 전달되었을 경우 관계는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당연히 성경 공부 이후에 필자의 마음은 관계성이 진전되었을 때 훨씬 편안하고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의 깊이는 상호동감을 통해서 첫 문을 열게 된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했을 때 그 안에서 생동감, 에너지, 열정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다. Ann이 대화를 통해 그와 같은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Beth 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Beth도 배타적인 말로만 관심과 돌봄을 하지 않고, Ann의 경험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151]

---

[150]Ibid., 30.

[151]Ibid., 31.

이처럼 생동감이나 에너지가 상승하는 느낌은 연대감으로부터 온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는 관계성에서 행동의 동기를 찾기 보다는 개인적인 행동가가 되라는 압박을 받는다. 사회에 의해 이렇게 설계된 남성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성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관계성보다는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조작되었다. 그러므로 관계성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수동적이 된다. 이 수동성은 심각해서 자신이 관계성을 크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교인과의 대화에서도 동감하면서 존재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특히 남성 목회자는 해결 중심의 대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대화에서는 단절이 발생한다. 존재론적 연대감도 형성할 수 없고, 상승하는 에너지도 느끼지 못한다. 이 과정 속에서 대화는 차갑게 단절되고 내담했던 교인은 또 다른 설교를 듣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고 여러 측면을 가진 느낌을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에 처해 있는 여성은 다르다. Beth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행동의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Ann의 주저하는 감정을 직시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장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두 번째인 행동화는 '즉각성'이 중요하다. 즉각성은 정직한 느낌을 표현하는 보증이 된다. 반대로 즉각성의 결여는 생각의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관계성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교감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감정의 즉각적인 교감의 순간, 다시 말해 즉각적인 반

응을 보였을 때 힘을 얻는 느낌을 가졌다. Ann이 처음에는 주저하고 대면하기 어려워했지만, 나중에는 Emily를 돕고자 하는 행동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었다. Ann은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Beth의 슬픔과 두려움도 알게 되었다. 더구나 Ann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지식은 대화를 통해 얻어진 것들이다. 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중요한 발견은 Ann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수치심이 실제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체는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치심은 조작된 환상이었고, 분명히 파악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보듯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관계성은 심리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성장촉진 관계성growth-fostering relationship이라고 한다.[152] 공감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능력을 통합하는 능력이다.[153] 공감하는 능력이 관계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상호 공감능력은 단순한 상호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질과 역동성의 문제이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본인은 몇 가지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한다. 관계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심리학에서도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였다. 욕

[152]Ibid., 42.

[153]Ibid., 43.

구의 만족 보다는 '관계적 참여gratification'가 더 동기부여에 직접적이고 기본적이라는 사실이다.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데서 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참여할 때 크게 얻어진다.[154] Freud 학파는 욕구에 대한 강조와 그에 대한 만족을 인간행동의 동기로 주장했다. 유아와 아동은 각 성장단계마다 최적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만약 만족감이 지나치거나 또는 너무 적을 때, 아이는 성장을 멈추고 그 단계에 머물러 빠져 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인 W.D.R. Fairbairn은 욕동 구조모델로부터 관계 구조 모델로의 전환을 주장한다.[155] 그의 동기이론은 첫째,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대상object을 추구한다. 쾌락은 충동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통찰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가 욕구만족이 아니라 관계에 참여하는 데서 찾도록 공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서 첫 24시간 만에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아기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실례이다.

두 번째 범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power-over의 모델에서 상호관계성 mutuality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156]. 그룹 안에 지배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

[154]Ibid., 47.

[155]김홍근, *심층심리와 기독교 영성* (서울: CLC, 2004), 200.

[156]Jean B. Miller and Irene P. Stiver, 49.

그룹이 만들어 진다면, 관계는 파괴될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 사회는 상호관계성에 기초한 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가부장제 사회는 제한된 협정으로서의 힘의 철학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힘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런 형태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계층주의, 동성애자차별주의heterosexism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지배그룹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피지배 그룹을 규정하고 등급을 매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억압은 관계의 억압인 것이다. 지배그룹은 상호 관계성을 거부하므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단절을 만들어 낸다.

2.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민교회에서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안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요소를 찾아 보아야 한다. 우선 이민교회 안에 존재하는 원형을 인식해야 한다. 평신도의 의식구조는 성聖과 속俗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면서 성의 영역에 목회자를 설정하고 속의 영역에 평신도를 두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의 유출 원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출 원형을 강화시켜주는 많은 용어들이 존재한다. 성전, 제단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예배당, 강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평신도는

소통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자신을 제한하기도 한다.

두 번째 지적할 것은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종속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억압적 형태로 가부장제적 문화와 계급주의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교우들 사이의 단절을 심각하게 만들어 내는 기도 한다. 이민교회에서 장로제도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오순절 교단, 심지어는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침례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 내의 계급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임직 당사자는 남성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장로임직을 전후한 갈등이다.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특정그룹의 지배력에 기초한 모습이 이민교회의 현 모습이다.

미주 한인 이민교회에서 소통을 막는 세 번째 구성적 요소는 가부장제의 억압적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임과 동시에 해방자인 여성의 역할이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막혀 있다는 것이다. 관계성의 성숙을 위한 열쇠는 여성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앞의 Beth 대화에서 확인되었다. 동감하고 즉각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은 관계성의 성숙과 올바른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게 해 준다. 교회의 소통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 보장은 소통을 통한 관계성의 회복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의 핵심이 된다. 또한 여성이 소통의 원활한 담지자라고 판단된다.

관계성은 역동적인 과정이지, 정체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소통은 참여자를 성장 시켜주고 새로운 인식의 차원을 열어준다. 이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 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동체는 관계성이 가장 건강하게 회복될 삶의 현장이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의 성격을 회복할 때 가장 건강하다. 교회와 공동체와 소통은 서로를 상보하는 통전적 관계로 존재한다.

공동체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신뢰가 있고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공동체이다. 만약 우리가 판단 받고 거부되거나 어리석다고 비난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한, 여전히 공동체로서의 길은 요원한 것이다.[157] 의사소통의 총체적 목적은 인간 사이의 화해와 조정이다.[158] 여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이 요구된다. 공동체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면서 같이 자라난다.[159]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그들 자신에 대한 자존 감을 발견하도록 돕고 함께 있어주는 일이다.

---

[157] 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Mahwah, New York: Paulist Press), 53.

[158] M. Scott Peck, *평화 만들기,* 김민예숙, 김예자 공역 (서울: 열음사, 2006), 328.

[159] Jean Vanier, 142.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소통의 장을 열고 서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성을 갖기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우선 대화의 방식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해결 중심의 제안이다.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해결책 뒤의 그림자는 역설적이게도 서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욕망이 존재한다.[160] 관심을 갖는 척 하면서도 서로를 버리기 위한 책략으로 사용된다. 문제를 털어놓는 상대방은 해결책이나 개선, 구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대면,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이러한 해결책 중심의 제안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의 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관계의 성숙은 없어지고 단절이 드러난다.

대화 속에 내 존재를 참여시키는 소통의 방식은 많은 훈련과 세심한 주의력,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소통을 위해 말하고 귀 기울이는 법이 존재한다. 일상의 대화는 '표현적이기 보다는 수단적'이다.[161] 진실을 말한다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언하거나 꾸짖거나 동조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하지만 표현적으로 말한다고 할 때는 자신이 내면의 안내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고, 자기 안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말한다. 존재의 중심에서 자신의 말을 경

[160] Parker Palmer,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윤규상 역 (서울: 해토, 2007), 160.

[161] Ibid., 162.

청하는 중심에게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적인 말을 할 때는 수단적인 말을 할 때보다 훨씬 편안하다.[162] 실제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으로 말할 때에는 초조하고 심지어는 불안해지기까지 하다. 보통 우리는 filtering을 통해서 동의하는 말만 듣는다. 존재의 중심으로 진실을 표현할 때 들어주는 능력이 또한 필요하다.

온전히 들음과 더불어 우리는 질문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솔직하고 열린 질문은 결코 쉽지 않다. '심리치료사를 만나 볼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은 솔직하고 열린 질문이 아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의 진실을 끌어내는 대신, 상대의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닌 내게 도움을 준다.[163] 솔직하지 못한 질문에는 오만함과 충고를 질문으로 위장하려는 거짓이 숨겨져 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탐구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넓혀주고, 해결을 재촉하거나 유도하지도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는 이보다 한걸음도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교회의 소 그룹에서 이와 같은 닫힌 질문들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자들의 진실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강요하거나 미리 방향을 잡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대상화된다. 대상화는 소외를 낳고 소외는 단절을 가져온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통은 공동체를 형성

---

[162] Ibid., 163.

[163] Ibid., 180.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토대이다. 공동체는 개인주의와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갇힌 현대인의 유일한 탈출구이다. 교회의 공동체적 지향점이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소명을 자기 정체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통은 심리학적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인간이해에 대한 변화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 욕망의 만족이라든지 독립성을 성숙의 잣대로 삼는 데서 벗어나 인간을 관계의 그물망에서 바라보고 철저히 관계 속에서 인간됨이 완성된다고 보는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에서 출발한다. 인간 존재는 세계 속의 존재이며 또한 세계 속의 삶이다. 이는 철학의 조류에 있어서 서양철학에서 아시아 철학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철학의 주요 관심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얻은 통찰은 관계의 소통에 있어서 감정과 느낌의 중요성이다. 보통 가부장적 사회에서 감정과 느낌은 부적절한 것으로 폄하되어 왔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왔고 문화는 감정과 느낌의 표현을 지극히 제한하고 억제한다. 이는 특별히 남성의 문화적 영향이다. 여성은 이에서 자유롭다.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해방자인 여성은 관계에 예민하고 감정과 느낌의 표현에서 활발하다. 교회는 은사 중심의 소 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특별히 여성의 활동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관계 중심의 공동체는 여성을 통해서 공간이 열릴 것이다.

## 제6장 실험과제Project

### 1. 의식 변화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서 미주 한인 이민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교회 공동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프로그램의 개발, 교회의 개혁을 위한 방향을 몇 가지 과제를 갖고 시행해 왔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소속된 미주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론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 교회가 뿌리내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도그마가 현실과 어떻게 만나 대화하며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각 교회 회중의 과제이다. 본인의 주장은 교회는 이웃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중심으로 뿌리 내린 공동체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하나의 제도화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관점을 최대한 살려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운동의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 나라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생활 공동체 운동을 교

회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실험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제는 이웃이 누구인가 와도 관련 있는 주제이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영성의 뿌리와 직결된 도전이다. 네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나눔의 시스템을 체질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과제로 삼았다. 다섯 번째로 이런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마지막 과제이다.

대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가 하나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비롯해 바울이 기다렸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공동체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 왔다. 이것은 결과론에서 볼 때 교회가 역사의 도전과 현실에 대한 적응 사이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실현할 것인지의 심각한 과제를 부여 받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장지상주의, 물질주의, 일등주의가 만들어 내는 영향력과 이에서 파생하는 불합리한 가치의 확산이 교회의 자기 정체성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바탕을 둔 대부분의 교회는 오직 하나의 목표인 Mega Church를 향해 지금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 그 희생 안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각자의 내적인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정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메가 처치 현상은 성장지상주의를 동력으로 만들어진다. 성장지상주의는 물

질적 성장을 토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가치관이다.[164] 물질적 성장이 패러다임의 핵심이 된다. 결국 크기의 문제가 한인교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목회자의 영성,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두 성장지상주의와 그 결과인 크기에 의해 평가되는 현상이다. 예전에는 목회자의 이미지가 세상과 거리를 둔 경건한 성직자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능한 경영자의 이미지로 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ugene Peterson도 미국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명은 충분히 지지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165] 많은 목회자들이 제도화된 출세주의에 걸맞은 쇠약하고 공허한 영성에 물들어 있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목회가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공이나 출세를 더 간절히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 Peterson이 바라본 목회현실은 신학의 진리나 영성의 원리가 아닌 시장 원리와 시장의 압력에 밀려고 있다는 것이다.[166]

성공주의 신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교회론 ecclesiology에 대한 새로운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성장주의가 낳은 성공주의 신화에

[164]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경기 부천: 정연, 2009), 100.

[165]Eugene H. Peterson,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7.

[166]Ibid., 19.

물든 교회론을 비판하고, 선교의 과제로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의식변화와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1) 교회론ecclesiology에 대한 의식변화

진정한 교회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재검토가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의 교회 섬김의 태도에 있어, 경영학적, 실용주의적, 결과주의적 사고가 지배한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 원칙과 교회 섬김의 태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회건물, 신자 수, 예산 규모, 소속교단의 신학노선, 당회나 제직회의 조직 등을 중요시하는 '영적 공동체의 물량화'가 진행되고 있다.[167]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성공주의 신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미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미국식 성공주의에 입각해 다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168] 목회 현장을 성공과 기회

[167]김경재, *영과 진리 안에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2.

[168]Eugene H. Peterson, 36.

를 위한 발판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으로써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라는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Eugene Peterson의 말처럼, 우리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Benedict 서약의 문구처럼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성숙이 외적인 자극, 즉 좋은 생각, 뛰어난 감동, 고양된 영향력이나 개념 등에 의존한다는 어떠한 주장을 거부하는 삶이다.[169] 이것은 지향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비 성서적인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자각한다. 이는 Henri Nouwen의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소명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은 하향성의 삶이다.[170] 진보와 성공을 향한 상향성의 가장 큰 위험은 그 자체가 종교가 된다는 것이다.[171] 이 때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되고, 실패는 범죄했다는 것을 믿게 된다. 반대로 하향성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 그리스도의 길은 종의 길이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좇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172].

이런 하향성으로 내려가는 교회론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장 먼

---

[169]Ibid., 36-37.

[170]Henri Nouwen, *긍휼: 하나님과 만나는 길,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길*, 김성녀 역 (서울: IVP, 2002), 60.

[171]Henri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 역 (서울: IVP, 2003), 18.

[172]Ibid., 23.

저 성공주의와 부딪치게 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삶의 방식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다. 상향성을 지향하는 교회론은 당연히 물질적이고 외형적이며 성공주의적인 판단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삼게 된다. 하향성의 교회론에서 교회건물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교회건물은 외향적이고 성공지상주의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건축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탐욕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메가 처치의 불행은 탐욕주의가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과 결합되었다는데 있다.[173] 이처럼 교회 건축은 탐욕주의를 발산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을 생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건축을 위한 구호는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참여자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 인간은 공간과 영토에 대한 확보 욕구를 갖고 있다.

대안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질주의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된다. 예수가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었다(마4:3). 하향성의 교회론에서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된다. 물질의 양보다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중심이 있다. 업적주의에 대해 거부한다.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당대에 내놓느냐에 대한 관심을 접는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물질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가치를 둔다. 본 교회의 생존만을 위해 최소한의 물질만이 사용되고, 잉여부분은 모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

[173]신광은, 177.

용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기 위해서 본 교회는 건물을 포기한다. 자체의 유지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자체의 건물을 갖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광야의 천막으로 남기를 기뻐한다. 교회는 불편할수록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불편은 건강한 영성의 기초가 된다.

이런 의식변화를 위해 구제의 십일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명기 26장 12절, “삼 년째 되는 해 곧 십일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네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내어 레위 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공동번역).” 구제의 십일조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2008년까지 본 교회 개척 당시 십일조 헌금의 삼분의 일을 따라 구별해서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에 약 5,000불의 헌금이 사용되었다.[174] 매주 헌금의 총액이 약 200불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헌금이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구조적 실행을 통해 교우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의 사용에 대한 원칙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의식의 변화는 이처럼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난다. 이 같은 시도는 십일조에 대한 말라기 예언서의 축복 일변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적지 않은 교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

[174]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에게 장학금으로 $1,000, 한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500.00 등을 기부하였다.

본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한 몸이라는 철저한 자기의식에서 더 구체화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생명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예수 없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교회 없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할 수도 없다.[175]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서 이질적인 다른 지역교회와의 통전적 합일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체현하기 위해 보편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지역 교회의 분란과 싸움, 그에 따른 상처는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각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시작부터 교회의 도덕적 순수함과 건강성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본 교회는 기존 교회의 분란과 분쟁의 여파로 설립되지 않았다. 지역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란과 분쟁의 씨앗은 언젠가 발아하기 마련인데, 태생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차후 교회의 건강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의 출발선은 작고 보잘 것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 가치 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이웃에 대한 존재론적 배려의 토대가 됨을 지향하는 의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세계 교회의 지체로서 보편적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좀 더 적극적

---

[175]Henri J. M. Nouwen, *The Only Necessary Thing*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9), 87.

으로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 차원에서 교회 일치 운동에 합류한다. 예배 예전을 교회력common Lectionary[176]에 따라 실행한다. 단순히 본문 말씀을 공유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교육적 차원까지 확대된다. 지역 교회와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체험한다. 성만찬 예전과의 통일성도 같은 의도에서 기획된다.

대안 교회 공동체의 교회론은 성서의 가치를 그대로 실행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가 물리쳤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4:4).’했다.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본 교회는 매달 재정을 결산한다. 교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 자산은 본 교회 자체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갖는다. 단순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 실제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신앙고백은 삶의 자리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 교회는 성서적 가치가 실현되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대안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교회는 그 자체의 재정구조를 나눔과 섬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하향성의 삶을 살았던 예수를 따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이런 재정구조는 제자의 삶을 위

[176]http://lectionary.library.vanderbilt.edu/ (accessed Dec. 1, 2009).

한 가장 성서적 구조라고 생각한다.

2)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왜곡되고 오용되는 언어를 재 정립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인식은 복음이 곧 축복이라는 등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언어는 너무나 많이 손상되었다. 무게를 잃어 버렸고, 추상화되었고, 함부로 사용되고 우상화되었다.[177]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감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는 언어 능력의 회복은 영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개신교 영성의 뿌리를 내면에서 경험한 하나님 보다는 밖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내리고 있었다. 밖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서의 영성을 추구해 왔다는 반성이 있었다. 직분이라는 형식 안에 직분에 맞는 풍부한 내용을 채우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열심히 직분을 담당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반성이다.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교우의 내면은 병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기 보다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 희생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개

[177]Marva J. Dawn, *언어의 영성*,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09), 24.

교회의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정작 그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너무나 세속적 기업의 윤리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의 개념이 미주 한인 개신교적 전통에 뿌리를 내릴 때 외적이고 물질적이며 축복의 개념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과 영적 성장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직분을 맡은 형식에 영적 깊이의 내용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런 자기반성은 철저한 자기 인식과 내면의 깊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영성에 대한 의식 변화는 내면으로의 여행에서 출발한다. 삶은 내면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삶의 경험을 기독교 영성적 차원에서 올바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경험을 인식하는 주체가 올바로 서야 한다. 참 자기real self의 주제가 여기에서 등장한다. 참 자기에 기반해야만 총체적 경험으로서의 기독교 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다. 이처럼 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 활동, 직분 등에 대한 관심에서 내적인 깊이로 내려가는 방향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개신교 전통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판단된다.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의 두 번째 측면은 영성을 형성하는 기둥을 어디에 세울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기독교 영성의 기본 정의는 근본적으로 신학적 근

본개념들이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관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이 삶과 맺는 총체적인 경험인 것이다.[178] 여기에서 세상과 역사의 주제가 등장한다. 기독교 영성은 세상과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지저분한 것이다.[179] 그리고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징은 죽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의 세상의 본래 모습이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섬김과 돌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참된 영성의 깊이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세상과 역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위협과 착취, 예수의 방식이다.[180] 위협은 강력한 정세와 권세 앞에서 소박하고 가정적인 안락함 뒤로 숨는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극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한정 짓는다. 다음은 착취인데, 역사의 방식대로 자신을 맞추어서 권력과 폭력, 신분과 지위,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방식인 기도와 예배, 용서와 사랑이 함께 할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다. 예수의 방식은 복음의 방식대로 역사에 들어가고 역사를 받아들인다. 예수가 행한 역사의 참여 방식에는 그의 고난과 죽음이 가장 무겁게 들어앉아 있다. 이

---

[178]Alister E.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9), 3.

[179]Eugene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종태 양혜원 공역 (서울: IVP, 2005), 245.

[180]Ibid., 253-255.

말은 우리의 영성이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알려준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소위 지저분한 역사라고 불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는 물러서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영성의 뿌리를 역사에 두어야 한다는 의식변화를 추구한다. 가장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면서 역사적인 영성의 뿌리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영지주의의 해악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몸은 진짜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181] 역사와의 적대적 관계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고난과 고통,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고 치유되는 역사의 중심에서 건강성을 얻을 수 있다.

본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자부한다. 미주한인교회가 만들어 놓은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 모두가 초대형 교회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뒤편에 서 있다. 이것은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방식이다. 역사의 뒤로 물러 서거나 역사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수의 죽음의 방식을 따른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변화된 생각의 중심이다.

---

[181] Ibid., 115.

## 2. 행동변화

### 1) 기독교 영성과 관련된 행동변화

기독교 영성에 대한 교인들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묵상Lectio Divina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문은 교회력에서 제시한 시편을 사용함으로써 세계 교회와 맥락을 같이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담긴 사역과 우리 삶을 연계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거룩한 묵상 훈련은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시간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는 훈련이었다. 지식보다는 감정과 느낌, 삶을 나누는데 주력하였다. 객관적인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을 실존적으로 대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였다. 침묵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주어진 본문에서 한 단어를 느끼고, 그 단어가 어떤 우리 자신의 삶과 연관되는지 나누었다. 고민하는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영적 독서를 통한 내적 영성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헨리 나우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Parker Palmer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등을 함께 읽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다. 역시 주일 예배 후 성경공부 시

간을 이용하였다. 주제는 참된 삶과 관련된 참 자기의 발견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우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며 발제를 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독교 영성에 따른 행동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된다. 기독교 영성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여정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행동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믿음의 척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사와 장로 같은 직분은 그 중요성에서 경감된다. 또한 기도의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개신교 전통에서는 통성기도와 합심기도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교회의 절기와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는 다르게 천편일률적인 통성기도회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외형적인 기도의 소리지름보다는 침묵과 묵상 기도가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면을 향하는 여정은 외형적인 소리지름에서 얻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중들은 전인적holistic 즉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을 변두리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찾을 것이다.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현장과 우리 영성을 연결하는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를 테면 삶에 대한 감사의 영성은 개인적인 삶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에서 찾지 않고, 고난 당한 자와 함께 하는 인격적이고 연대적인 참여 속에서 영성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감사를 찾는다. 기쁨과 평안과 같은 영성의 요소에 대한 모든 존재론적 뿌리를 같은 방식으

로 찾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욕구되는 특정직분, 예를 들어 장로에 대한 욕망이 올바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적 소외에 대한 욕망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교회 일치Ecumenical를 위한 행동변화

교회 일치를 위한 행동변화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고백과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묶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부 지향적인 공동체는 질식사할 것이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 개별적인 공동체는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필요하다. 각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182] 첫째, 교회의 핵심인 예배 공동체를 교회력에 따라 설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편교회와 특수교회가 통전적으로 연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이전에는 마가복음과 창세기, 룻기를 이어가는 강해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핵심인 예배 자체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교회력을 통한 예배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182] 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Mahwah, NJ: Paulist Press, 2003), 146.

두 번째는 주일 강단의 개방이다.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절기를 이용해 같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강단 교류를 통한 연대를 모색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문동환 목사(전 한신대 교수)와 교단의 목사들을 초청해 설교를 들었다. 교인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색다른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필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치 운동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 2008년 9월에는 최길종 목사, 2009년 3월과 11월에는 문동환 목사, 2009년 6월에는 ABC교단의 James Kang 목사를 강사로 영어 설교를 들었다.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주제 설교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성에 대한 노출은 좀 더 폭넓은 신앙의 이해와 이웃을 받아들이는 건강한 공동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회중들이 성서를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개인적인 고난에 처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바라보던 성서해석이 고난 당한 자와의 연대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실존적이고 통전적으로 성서를 소외 아래로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서 해석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폭넓게 실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시각으로 참여자는 성경의 도전을 가지고 홈리스 삶의 현장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숙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지향주의적 행동양식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강요되는

미국사회에서 개인적 욕구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적 소비를 추구할 것이다. 즉 공평한 분배에 대한 결단이 신앙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될 것이다.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동양식을 기대한다.

3) 교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동변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7년부터 건강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007년 박경순 AWCA of NJ 상담소장을 강사로 1월 28일 자녀와의 관계, 2월 25일 부부관계 세미나를 시작으로 그 동안 7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09년 교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서 7차 세미나는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건강한 공동체 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27일 한동석 목사[183]를 강사로 '가족관계 속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안으로는 교인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증대하고, 밖으로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 300여 통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소통의 영역을 교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특별히 세미나에서 진행된 부부간 소통의 실제

[183] 한동석목사 약력, NY Licensed Psychoanalyst, Certified Pastoral Psychotherapist, Certifi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Creative Living Counseling Center, Allandale Site Director, Blanton Peale Graduate Institute, Teaching Faculty and Supervisor.

적 실행연습은 많은 의미를 남겼고, 우리 스스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기, 역할 바꾸기 등을 통해 소통을 방해하는 우리 자신의 이슈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원하는 우리의 과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 중의 하나는 민주적 운영방식이다.

4) 생활공동체 운동을 통한 outreach 강화 행동변화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영역이 크게 확대 발전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 구성원들이 적극적 주체로 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세탁소 영업주들과도 폭넓게 연대할 것이다. 한인 운영의 세탁소를 연결하는 network은 하나님 선교를 위해 좋은 모델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값진 경험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개 교회가 모든 선교사역의 주도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이기주의를 벗어나 하나님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개 교회 또는 교단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프로테스탄트의 한계를 일정부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네트웍의 연대가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면, 좀 더 발전적 모임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지 않는 옷을 빼내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현실적 이점도 있고,

동시에 의미 있는 사역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통해 얻어진 경험은 향후 단순한 참여에서 적극적인 동참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하나인 교회에 대한 경험과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한 networking은 담임목사 중심의 개 교회적 폐쇄주의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할 것이다.

### 3. 교회 시스템 변화

#### 1) 민주적이면서 역사적 예수의 삶을 담은 예배 갱신

본 교회의 시스템은 이민사회 현장의 요구와 성서적 가치의 융합을 근간으로 진행해 왔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거나 중단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평가한다. 예배는 교회의 갱신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함축적인 결합의 장이다. 예배는 개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신앙, 그리고 가치관의 총체적 결합이다. 여성해방적 입장에서 추구하는 예배 갱신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여성해방적 예배의 특징을 보면, 첫째, 위계질서적 형태들보다는 공유된, 평등적 리더십과 관계를 선호한다. 둘째, 수직적 패턴들보다는 공간 배치들과 운동에 있어서 원형과 지평적 패턴을 선호하며, 셋째, 인간의 지배보다는 자연세계와의 상호관계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넷째, 여성들의 경험들, 삶의 관계들, 능력 부여와

해방에 관해 강조하며, 다섯째, 여성들을 주변화하며 가부장적 예배에 대한 명시적 혹은 함축적 비판이라는 양상을 가진다.[184] 이런 예배의 변화와 갱신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이루는 기초적 토대가 된다.

본 교회 예배의 중심은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를 좀 더 주체적으로 세우는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포함한다. 평신도 리더십의 강화에 있다. 목회자가 이끌고 평신도는 소극적으로 따라오는 구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평신도의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되, 평신도의 구별도 어른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예배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주체가 되는 예배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주일 성서본문은 교회력의 일과에 따라 구약과 복음서, 바울 서신서에서 각각 정해진다. 성서 봉독을 구약은 성인어른, 서신서는 주일학교 어린이, 그리고 복음서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교독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른, 평신도와 목회자, 이민 1 세대와 2 세대가 예배라는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히 어른들은 자녀들이 각각의 수준에 따라 한글이나 영어로 성서봉독을 할 때 침묵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의 성서봉독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봉독을 마쳤을 때 아멘 복창을 크게 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자녀들도 부모들이나 교회의 어른이 성서봉독을 하기 위해 강대상에 오를 때 조용히 모습을 지

[184] 김애영, “여성해방적 예배의 추구와 전망” *신학사상* 146 (Fall 2009), 149-150.

켜보며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자녀들을 동등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하는 의미도 되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되었다.

아래는 최근에 드린 주보의 예배순서이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그에 따른 세 개의 본문 선택, 각 본문 낭독에 있어서 각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이 예배의 서두에 들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성만찬 예전도 예배 갱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헌금은 자유롭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이 절기 별로 미리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회력에 나오는 시편 본문은 한 주간 묵상의 주제로 주어지는데 거룩한 독서 운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주일예배[185] Feb. 6, 2010

다섯째 주현절 인도: 한재경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Praise & worship

예배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송 영*/ 이 천지간 만물들아(5장)
doxology

---

[185]하늘뜻교회 주보 176호, Febuary 6, 2010.

주 기 도 문*/ 다함께
Lord's Prayer

교 독*/ 14번 시편 24편
response reading

찬 송/ 불길 같은 주 성령(184장)
Hymn

공 동 기 도/ 다함께
Prayer

봉 헌 찬 양/ 50장 2절/ 김재화 집사
offertory

성 경 봉 독
구약본문 사 6:1-8/ Danielle Park
서 신 서 고전 15:3-6/ James Kim 어린이
복 음 서 눅 5:1-11/ 교독

설 교/ 한재경 목사
Sermon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성만찬 예전/ 별지 참조
Communion liturgy

교 회 소 식/ 인도자
Announcements

결단의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285장)
sending songs

축 도*/ 한재경 목사
Benediction

* 표는 가능하면 일어서기 바랍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정성으로 드립니다.

교회력에 따른 설교본문

**Ash Wednesday/ Feb.17,2010**

사 58:1-12; 고후 5:20b-6:10; 마 6:1-6,16-21;(거룩한 독서) 시 51:1-17

**First Sunday in Lent/Feb.21,2010**

신 26:1-11; 롬 10:8b-13; 눅 4:1-13; (거룩한 독서)시 91:1-2, 9-16

**Second Sunday in Lent/Feb.28,2010**

창 15:1-12,17-18; 빌 3:17-4:1; 눅 13:31-35 or9:28-362:1-11(거룩한 독서) 시 27

**Third Sunday in Lent/March.7,2010**

느 55:1-9; 고전 10:1-13; 눅 13:1-9; (거룩한 독서) 시 63:1-8

**Fourth Sunday in Lent/March.14,2010**

수 5:9-12; 고후 5:6-21; 눅 15:1-3, 11b-32; (거룩한 독서) 시 32

**Fifth Sunday in Lent/March.21,2010**

사 43:16-21; 빌 3:4b-14; 요 12:1-8; (거룩한 독서) 시 126

시스템 변화의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한 예배공동체의 갱신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교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성만찬이 실질적인 권위와 함께 물리적인 행동의 장을 열어준다. 바울이 AD 50 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본문이 마가의 기록보다 20여 년이 앞서지만, 마가의 기록이 아람어로 쓰였다는 이유로 좀 더 오래된 것으로 주장된다.[186] 바울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전11:24).'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고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을 주장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22의 말씀처럼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 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만찬 전통을 본 교회 예배갱신의 전통으로 받아 들였다. 왜냐면 역사적 예수의 삶을 예배 공동체 갱신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본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을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라는 원래적 핵심에 고정해 두려는 의도적 도안이다.

한국 개신교는 지나치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다. 결과적으로 말씀 선

---

[186] 가흥순, *성만찬과 예배갱신* (인천, 경기: 여명, 2009), 34.

포자와 회중은 분리되고,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분명해졌다. 마치 회중석과 강대상의 구별이 엄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성만찬을 목회자가 강대상을 내려와 주의 성찬을 중심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룬다. 신분과 지위, 남자나 여자에 상관없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즉 동일한 식사를 함으로써 식사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몸 안에 물리적으로 받아 들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같은 식사를 한다는 공동체성의 회복에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성만찬 식사 공동체는 섬김과 나눔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섬김과 나눔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핵심이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신앙이 아닌가 판단된다. 설교는 지나치게 축복 중심으로 선포된다. 기복신앙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성만찬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적 예배갱신이 알맞은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를 목회자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교인들은 회중석에서 나와 먹고 마심으로써 실천한다. 강대상과 회중석의 중간 지점인 성찬대에서 만나는 것이다. 또한 상징을 통한 거룩성 회복에도 성만찬은 기여한다. 개신교회의 성장 드라이브에 모두가 지쳐있다. 교회의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187] 거룩성 회복은 종교의 뿌리이며 기본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과 행동화된 의식은 서로를 보강해 준다.[188] 상징은 실재에 대해 창조적으로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거룩성

---

[187]조연현, “기독교 초심의 신앙적 문법으로 돌아가라” *기독교사상* 587 (November 2007), 93.

[188]가흥순, 111.

은 성만찬이라는 상징을 통해 실체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되도록 자신을 허용한다.

본 교회의 성만찬 예식은 리마Lima 문서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1982년 세계교회협의회는 Peru의 수도 Lima에 모여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라는 리마 문서를 채택했다.[189] 리마 문서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예배전승, 역대 교회 예배 유산, 오늘의 예배신학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90] 본 교회가 성만찬 예식의 갱신을 리마 예식서를 근간으로 삼으로 것은 무엇보다 세계 교회의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예배 갱신의 세 번째는 교회력에 따른 설교본문의 선택과 예배의 진행이다. 교회력의 사용은 세계교회와의 유기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여러 계층의 다양하고도 주체적인 예배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 무엇보다 성만찬과 유기적 연대성을 갖게 해 준다. 교회력은 여러 측면에서 예배 공동체의 민주적 개방성과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세 개의 본문은 여러 측면에서 예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설교본문이 균형적으로 준비됨으로써 목회자의 설교가 본문 선택이나 메시지의 균형에도 도움을 준다.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말씀을 자신의 목회 방향에 맞게 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또한 미드라쉬midrash 독서법 또는

---

[189]Ibid., 70.

[190]박근원, "리마예식서의 새로운 평가", *기독교사상* (November 1991), 51.

연상 독서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본문이 다른 본문을 보충하도록 돕는다.[191] 본문에 대한 목회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준다. 또한 세 개의 본문 낭독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다양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본 교회는 구약은 성인 신도회에서, 바울 서신서는 주일학교에서, 복음서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교독하도록 채택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계층간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서 봉독을 매개로 참여하는 통로가 되었다.

2) 교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소통의 강화

소통에 대한 중요성은 본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특별히 다뤄온 패러다임의 한 축이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관료제에서 네트웤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관료제 조직에서는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 있는 관료제 조직의 상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의사 결정권과 책임을 가지고 상명하달 식의 업무 수행이 이뤄진다. 업무의 신속성이 큰 장점이겠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중시하게 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 조직 자체의 존속과 기득권 유지가 최우선목표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한다.[192] 현재 기업들은 피라미드 형에서 네트워크 형으로, 하달 식 권력체계에서, 공

---

[191]이연학,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거룩한 독서의 원리와 실천*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54.

[192]정재영, "사회의 변화와 목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38.

유하는 권력 체계로, 관료주의에서 유기구조로 옮겨가고 있다.[193]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원활한 소통은 교회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또한 소통은 교인들의 창조적인 참여와 발상을 교회의 발전과 건강을 향상하는데 쓰이도록 유도한다. 미주 한인교회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이민 교회의 분쟁과 법정 다툼, 교회의 분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 교회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척 초기인 2006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194]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인들 간에, 목회자와 교인 간에, 1세대와 2세대 간에, 교회와 세상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특별히 문자는 언어와는 다르게 좀 더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감정적 요소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의 유동성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목회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이다.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우선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하는 세대가 본 교회에는 아직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대인 youth group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 기성세대에게 인터넷은 아직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생활의 중심

[193] Ibid., 39.

[194] www.heavenswill.org.

으로 끌어 들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의 활용은 교인간의 소통보다는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부인의 많은 방문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교회의 개혁성과 개방성에 대한 관심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으로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적 정관의 도입이다. 민주적 정관의 문제는 교회 운영의 청사진이다. 본 교회는 미주 뉴스앤조이를 통해 소개된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경상대 백종국 교수가 미주이민교회를 상대로 제시한 민주적 정관 모범을 갖고 토론을 가졌다.[195] 백교수가 규정한 미주한인교회는 사고가 많은 교차로와 같다. 백교수에 따르면, 좋은 정관은 교회 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만, 나쁜 정관은 이를 해칠 뿐 아니라 분규가 시작되었을 때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백교수가 제안한 민주적 정관의 특징은 분업의 효율성에 있다. 교회의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골고루 책임과 역할을 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7조 3항에 의한 당회 조직에서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26조 3항에 의하면 당회장은 제직회장직도 겸임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담임목사는 당회장과 공동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가 당회장을 당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적 정관의 개

[195] http://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1057 (accessed Faburary 15, 2009).

혁성과 분업적 역할에 대해 교인들과 같이 토론하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교회가 실질적으로 택한 교회 정관은 기존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의 장점을 살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실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별히 민주적 정관은 재정관리에 있어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관리는 교회가 건강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와 긍정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 가톨릭은 청렴성의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성당의 수입 지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성당의 신자들 개인 헌금액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반면, 한국 가톨릭 성당의 수입 지출은 모두 공개되며, 신부와 수녀들은 생활비와 주거, 노후 생활, 질병 치료를 교구가 책임지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모으지 않는 점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로 뽑았다.[196] 민주적 정관에 소개된 교회 재정운영의 두 원칙은 투명성과 균형이다. 31조 1항은 교회 재정의 균형을 지적한다. 구제와 선교, 교육 등에 균형을 맞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분야가 교육과 선교, 구제이기 때문이다. 교회 설립의 가치를 담은 원칙은 언제나 현실에 부딪쳐 허물어 질 때가 많다. 투명성은 31조 2항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두어 각각 시행한다.

---

[196]조연현, “기독교 초심의 신앙적 문법으로 돌아가라” *기독교사상* 587 (November 2007), 92.

본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월 교회의 지출과 수입을 결산해서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교인들에게는 별도로 결산 내역을 보내주고 있다. 2009년 10월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를 포함해 인건비(교육부서 인건비 포함)가 54.5%, 교회 유지비 19.7%, 예배 및 교제비 10.4%, 선교 및 구제비가 15% 가량 지출되었다.[197] 교회의 유지 및 인건비를 최소화 하고 교육 및 선교, 구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실행이 있었다. 2006년 당시에는 십일조의 삼분의 일을 무조건 구제 및 선교 비용으로 책정해서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자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역이 충당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 현재의 지출 내역이다.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은 평신도들이 제공하지만 재정의 사용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사용이 결정되고 있다.[198] 재정 지출의 시스템을 어떤 목표와 가치로 만들 것인가는 교회의 새로운 목회패러다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교회의 자립도를 높인 후 선교 구제에 대한 지출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섬김과 나눔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교회

[197]http://heavenswill.netfirms.com/bbs/view.php?id=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198]정재영, “사회의 변화와 목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39.

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회 재정은 처음부터 그 가치에 맞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선교와 구제, 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균형 잡힌 교회 재정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기 위해서 본 교회는 미래를 위한 물리적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교회 건축이라든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어떤 수단도 간구할 수 없었다. 오직 현재에 주어진 재정을 나름대로 가치 있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다. 공동체가 미래의 안전을 위해,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시도할 때,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공동체 스스로 가난해 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199] 미래에 대한 불안은 믿음으로 채우라는 설교와 믿음의 강조를 제안했다. 그러지 않고는 구제와 선교, 교육에 대한 재정확보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을 것이다.

절기 특별헌금은 그 정신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헌금은 겨울을 맞이하는 맨해튼의 홈리스 형제들을 위해 새 장갑과 목도리, 모자를 구입해서 기증하도록 했다. 추수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이 준 것이고, 그 축복을 같은 형제인 우리의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2008년과 2009년을 합쳐 약 800개의 품목을 bridgesoutreach.org를 통해서 기부하였다. Bridges outreach inc.는 본 교회가 빌리고 있는 Christ Church에서 1988년에 발족한 맨해튼의 홈리스 형제들을 위한

[199]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Mahwah, NJ: Paulist Press, 1989), 143.

비영리단체이다.[200] 2006년부터 이 단체와 본 교회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선교와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적인 구축이 중요한 핵심이다.

본인의 목회 철학에 따라 재정 확보를 위한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다.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도록 제도화한다. 헌금은 예배 전에 자유롭게 한다. 특별헌금은 부활주일, 추수감사, 성탄절 헌금으로 제한한다. 각 절기에 맞는 헌금의 쓰임새를 그 가치와 정신에 맞게 사용처를 정한다. 여기에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힘이 모아지도록 노력했다. 그 밖의 다른 헌금은 개인의 상황과 신앙에 맞게 자율에 맡겼다. 당장에 헌금의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걸림돌은 제거하는 셈이다.

### 3)섬김과 나눔 중심의 목회 모델을 위한 시스템 변화

필자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alisades Park, NJ에서 Hispanic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은 'Happy Saturday Mission'이라고 이름 지었다. 우리의 봉사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준다는 의미였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바닥의 사람으로서 노동을 통한 생존의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들이 일일 노동자들이다.

---

[200]http://bridgesoutreach.org/.

특별히 멕시코와 쿠알라룸푸르, 페루 등에서 올라온 남미 계의 형제들은 하루의 노동을 위해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내걸고 있다. 2008년부터 불어 닥친 경기 침체는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는 일일 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특별히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졌다. 본 교회는 그들에게 무료 커피와 빵을 매주 토요일 아침 나눠주는 봉사였다. 커피와 빵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채워졌다. 교인들은 물품을 기부할 뿐, 실제적으로 사역에 잘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1년이 지나고 조금씩 Hispanic 형제들과 관계성이 형성되어 갈 무렵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타운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들은 Hispanic 형제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였다. 잠정적인 실패로 결론 내렸다. 어떻게 구제 사역을 좀 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봉사자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의 과제를 남겼다. 본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단과 타운의 관계, 주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협조적으로 만들 것인지의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본 교회가 행한 것은 '홈리스 사역'이다. 홈리스 사역은 Bridges outreach inc. 와의 연대 속에서 이뤄졌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한인 운영의 세탁소를 방문해서 찾아가지 않는 옷을 수거해서 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는 기부를 받는 일이다. 그간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7개의 세탁소와 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하였다. 교인들도 불필요한 옷을 남겨두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청빈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도전할 수 있었다. 교회 내에

Outreach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이 강화되고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omeless people을 위해 직접 음식과 옷과 담요와 같은 생활필수품을 직접 들고 Lower Manhattan으로 참여하는 Friday's Run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 정례화가 본 교회 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기본적인 시스템은 Bridges Outreach inc. 에서 갖춰 놓았다. 이를테면, 현재 Lower Manhattan에는 5개의 station이 있는데, Birdges의 Yellow Truck이 도착하면, Homeless people이 모이는데, 한 곳에서 약 30 분간 머물며 옷과 음료, 도시락과 더불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협력사역의 주체로서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를 중심으로 강화시켜 나간다면, Run의 정례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사역에 있어서 과제로 제기된 것은 헌 옷을 정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인운영 세탁소의 networking을 만드는 일이다.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는 옷을 처리해야 하는 세탁소의 요구를 잘 조직해야 한다. 현재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서 수거하고 있지만, 부정기적이어서 효율성과 협조가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헌 옷을 수거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호응이 예상된다. 세탁소 영업주에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교회와 Bridges Outreach 의 협력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맨해튼에 본부를 둔 Korean Community Society와의 협력사역도 모색되었다. 2009년 KSC의 뉴저지에 지부와 협력사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뉴저지 지

부장은 최은영 선생이었다. 그 분과의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사역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사역은 Holy Name Hospital in Hackensack 에서 실시하는 한인을 위한 무료건강 검진에 본 교회가 광고와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KCS 뉴저지 지부가 폐쇄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방법이 더욱 창조적으로 만들어 지고, 많은 비영리단체들과의 연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4) 생활, 사역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통전적 조화 모색

4년여의 교회 사역 기간을 거쳐 오면서,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회의 사역이 지나치게 예배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역량이 지나치게 주일 중심이고, 예배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예배 공간은 주일만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인력, 재정, 시간이 지나치게 주일 중심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삶과 신앙의 통전적 조화와 일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주중의 삶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런 풀 뿌리 공동체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다가 주일에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인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공동체란 결핍의 공동체이다. 모자란 게 없는 개인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공동체이다.[201] 식의주 생활양식,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시대의 우상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 생활 영성을 수련하는 삶이 공동체이다.[202] 세상 정사와 권세는 결혼임신출산육아, 식의주 생활양식, 부동산, 소비, 놀이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 실제적인 목회의 자리가 있다.[203] 전통의 공동체가 무너진 후 파편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된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204] 오늘의 사회는 중앙 중심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풀 뿌리 참여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본 교회 목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되었다. 하나는 기초 생활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주일에 모이는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화해서 일상의 삶과 주일의 삶을 통전적으로 상보하도록 하였다.

생활 공동체 운동은 결핍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쟁주의가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신 자유주의에 아무런 힘없이 노출된 삶은 결핍을 낳고, 이 결핍은 고스

[201]박승옥,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기독교사상* 613 (January 2010), 61.

[202]최철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생활 영성, 상호목회"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23.

[203]Ibid., 30.

[204]정재영, "사회의 변화와 목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40.

란히 개인의 고통으로 남겨진다. 본 교회는 이 결핍의 아픔을 공동체 운동으로 건강하게 극복하고자 한다. 생활 공동체 운동은 신 자유주의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결핍을 공유하는 몇몇이 생활 공동체의 기초를 이룬다. 이들은 서로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면서 합의와 상호존중, 민주적 결정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본 교회는 방과후 학교 생활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 이민사회에서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뉴저지 Ridgefield, Palisade Park은 첫 이민자들이 거쳐가는 첫 번째 베이스캠프와 같다. 이민생활을 잘 모르는 초기 이민자는 이곳에서 미국사회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한인커뮤니티가 잘 발달해 있으므로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물론 이민 생활이 안정되며 한인들은 학군이 좋은 타운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필자가 주거하는 타운은 교회가 감당할 많은 사역과 기초 생활 공동체의 틈새가 상당부문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초기 이민자가 많은 이곳의 한인들은 신분도 초기 이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보다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기러기 가정 등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미국사회의 렌트와 생활 비용은 이민초기 생활자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오후 2시 30분인 하교시간은 부모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가정에 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생활에 심각한 타

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 쪽 부모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교적 풍족한 가정은 당연히 필자가 거주하는 Ridgefield, Palisades Park에 살지 않는다. 학군이 좋은 Tenafly 같은 좀 더 안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초기 이민가정이기 때문에 아이의 숙제를 지도할 만한 영어의 역량을 부모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4학년 이상만 되더라도 부모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데 어려움과 한계를 느낀다. 많은 이민자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온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철저한 신 자유주의 시장이다. 자녀에 대한 질 좋은 교육이 잘못하면 방치의 사각지대로 몰릴 구조적 한계를 품고 있는데, 본 교회가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생활공동체는 이를 주목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방과후학교 생활공동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쌓이면 그 회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 생활공동체는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안들이 합의되고 결정된다. 모든 비용은 공평하게 분배해서 부담된다. 교수비용, 간식비, 부모교육 강사비용도 공평하게 분배해서 부담한다. 일년에 4차례, 3개월에 한 번씩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미국사회에서 건강한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사 초빙은 자녀를 예일대학에 보낸 부모, 아동 심리학 전공자, 현직 elementary school 교수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다방면의 전문가를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초빙한다. 특히 본 교회의 성도 중에서 자녀를 이미 다 키운 많은 경험을 가진 이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목적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에 있다. 다분히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이상에 맞게 자녀를 짜맞추는 식의 교육이 자녀를 병들게 하기도 한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전문적인 이해는 엄밀하게 자녀를 평가하고 좀 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힘을 부모에게 길러 줄 것이다. 숙제를 도와주는 강사에 대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원칙을 세우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간도 열어 놓는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풍부한 재원을 갖고 있다. 다방면에 걸쳐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연결해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필자는 방과후학교 생활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였다. 가장 좋은 공간은 지역 교회가 갖고 있지만,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교육관이라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지역 교회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 교회 중심주의와 부딪쳐야 했고, 교회 공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간으로 내 주기에는 아직 미주한인교회의 의식이 미숙했음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 생활공동체를 위한 재원은 일차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교회에서 월 200불씩 지원한다. 이 재원은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American Baptist Church에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fund로 지원받는 것에서 충당된다. 이 재원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이것은 생활 공동체 운동의 한 예이다.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결핍을 둘러싼 아픔과 고난을 같이 공유하는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결핍이 존재하는 곳마다 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별히 공동육아 공동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기는 가정에 큰 축복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기의 양육은 부모의 사회적 생활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같이 공동양육은 튼튼한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생활의 필요와 결핍을 중심으로 모이는 기초생활 공동체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사역중심의 공동체도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역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사역공동체는 교우들 각자의 소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예배 후 교제시간을 활용해서 사역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별히 사역 공동체는 대안적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역 공동체의 참여자는 높은 신앙의 수준과 헌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은사의 개발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Housing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인은 많은 영성 훈련과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깊은 긍휼과 연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Low income 생활자를 위한 Housing Project는 가장 낙후된 지

역에 소규모 unit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일차적 목적이다. Jersey City, Newark, Peterson이 대상지역이다. 가장 홀대 받고 가난한 지역이 Housing Project의 대상지역이 된다. 이 사역에 은사를 가지고 소명을 가진 교인을 발견하는 일이 우선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봉사는 건강한 영성의 기초가 된다. Housing Project는 다양한 봉사의 공간을 열어준다. 집수리를 위한 모든 활동이 곧 영성의 뿌리가 된다. 더 나아가 Housing Project의 지역은 선교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된다. 교단과의 연계가 이 지점에서 잘 활용될 것이다. 특별히 본 교회가 소속된 ABC는 African American, Hispanic community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Housing Project가 추구하는 지역과 겹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Housing Project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역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역의 다양성은 사역 대상에 따라 구별된다. 남자 홈리스, 여자 홈리스, low income 등에 따라 사역 공동체는 다양하게 꾸려질 것이다.

본 교회는 Thrift store를 계획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Happy Saturday Mission의 실패와 홈리스 형제를 위해 한인운영의 세탁소의 찾아가지 않는 옷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내놓은 재활용 제품들은 특히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 세탁기, TV, 냉장고, 소파 등은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교회가 소속된 summit 지역은 부유한 타운으로 질 좋은 가

정용품들이 버려지고 있다. 이를 수거해서 상품화해야 한다. 가난한 타운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 Thrift store을 구상하고 있다. 특별히 아이들 옷과 신발 등은 충분히 재활용 시장성에서 검증되고 있다. 한인 운영의 세탁소에서 수거된 옷들도 Thrift store의 공급을 감당할 것이다. 이 밖에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버려지는 비용을 Thrift store 안으로 모으고, 가난한 타운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에서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사역 공동체로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단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명자가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되, 봉사와 섬김을 위해 쓰게 될 것이다.

5)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적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과정이다. 1947년 Washington, D.C 에서 Gordon Cosby에 의해 설립된 Church of the Savior는 미국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이며, 대안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를 보여주었다. 그 핵심은 inward journey와 outward journey로 대표되는 깊은 영성과 예수를 중심에 둔 사회봉사의 균형의 장소로서 교회가 사회에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헌신자를 양육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을 신설해 놓고 이 과정의 이수 자에게 교회의 정식 회원자격을 주고, 은사에 따라 사역 공동체로 묶여진다. 현재 75개의 사역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어서, 자기 은사와 소명에 맞는 사역 공동체를 찾아가게 된다.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205] 기독교 윤리, 구약성서, 기도, 가난한 이와 함께 함, 소명으로의 부름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서 내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기, 성서 연구, 매년 침묵수련회 참석, 삶의 단순성 훈련을 받는다. 이 같은 과정은 제자로서의 값진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천을 낳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가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이에 맞는 사역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점을 인식하게 한다. 바로 행함 이전에 존재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함은 존재의 열매이다. 물론 행함은 존재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 그러나 언제나 행함은 존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존재에 대한 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본 교회는 제자사역학교를 위해 교과과정을 12주 과정으로 준비하고, 일부는 실행 중에 있다. 첫 번째 과정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참된 자기, 하나님의 형상,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206]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Henri Nouwen의 책 '영적 발돋움'과 Parker

[205]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05), 47.

[206]Henri Nouwen, *영적 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2007), 41.

Palmer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의 2장인 '이제 나 자신이 되다'[207]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여정을 한 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무엇보다 제자사역학교는 고민하게 하는 과정에 교인들을 참여시킨다. 교리적 이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그 토대 위에 경험한 하나님 이해를 기초로 다시 하나님에 대해 재정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론한다. 교회론은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과제와 씨름해야 할 도전과 대결하며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론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성 훈련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기도, 성서묵상을 배우고, 영적 일기를 쓴다. 그리고 Being with the poor를 경험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자사역학교는 참된 자기, 마음 가장 깊은 자리 위에 신앙과 인생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전인적인 개혁transformation이다.

[207]Parker J. Palmer,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홍윤주 역 (서울: 한문화, 2008), 24-59.

# 7장 목회 유능성 개발(Site Team)

## 1. Site Team의 구성과 사역

Site Team의 역할은 본인과 교회 사역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시각으로 평가 받고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사역 중심의 Site Team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본 교회 안에서만 Site Team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네 명의 Site Team은 본 교회 사역, 홈리스 사역, Mentor Group, 방과후 학교 mission group에서 선택되었다.

우선 본 교회의 제직회장인 김재화집사가 선정되었다. 이 직분은 임기 2년의 교회를 대표하는 선출직이다. 이 분은 40대 후반으로 본 교회 지역인 Summit, NJ에 주거하고 있다. 본인이 목회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참여하고 있는 동역자이다. 회중주의를 지향하는 본 교회의 특성상 제직회장의 직분은 장로교의 당회장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 본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 Riveredge, NJ에 위치한 길벗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환 전도사이다. 이 분은 필자와 십여 년의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 본 교회를 시작하기

Staten Island에서 5년을 함께 사역하였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목회와 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대화와 맨토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경험이 좀 더 객관적이면서 깊고 예리하게 필자의 사역을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본 교회의 중요한 홈리스 사역의 동역자로써 협력하고 있다. 한인의 세탁소들을 중심으로 헌 옷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동역 하고 있다.

세 번째는 West Paterson, NJ에 위치한 내리감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양기영전도사이다. 이 분도 본인과 10여 년의 목회적 동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NYTS 동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혁적인 젊은 목회자 인 Mentor Group에서 함께 신학과 목회 현장의 조화와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본 교회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네 번째 Site Team은 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실험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mission group의 교사인 황다솜 청년이다.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방과후 학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교회가 이웃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실험적 추구이기 때문이다. 생활 공동체 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대한다.

이처럼 Site Team은 목회현장의 동역자, outreach의 사역의 동역자, 개혁적 목회 패러다임을 함께 고민하는 Peer Group에서 선택되었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물의 상징 1: 씻음, 개혁하는 목회자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다. 인간 몸을 이루는 대부분이 물인 것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수도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했다. 특별히 물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이다.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은 자신이 썩지 않고 생명을 주는 물로 존재할 뿐 아니라, 관계의 더러움도 씻어낸다. 내적으로는 자기 갱신이요, 밖으로는 남의 허물을 떠맡는 다는 뜻이다. 물에다 더러운 걸레를 빨 때 물은 걸레를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대로 수납한다.[208] 세상의 허물을 대신 짊으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리라”(겔36:25, 공동번역). 물이 보여주는 상징은 죄를 씻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더러움을 씻어내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물이다. 이처럼 물이 주는 상징은 더러움을 없이하는 씻음에 있다. 물은 더러움을 자신에게 가져간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타자를 깨끗게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208] 老子, *도덕경,* 오강남 역 (서울: 현암사, 1995), 49.

흐르는 자기 갱신을 통해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상징을 물은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 활동의 건강한 본질임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신을 씻는 행위가 곧 사역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출발임을 언제나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자기 갱신의 바탕에서만 밖으로의 씻는 행위가 의미 있고 힘이 있을 것이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시도하는 지점에는 갈등과 저항이 존재한다. 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저항은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듯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일,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약속, 복음을 소비자의 용어로 재구성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209] 이런 저항은 인생을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안하라는 유혹이다.[210]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문화이다. 문화는 우리 생각과 사고의 근저를 형성하며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의도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강요 받고 있는 시대를 살며 목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목회하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악의 뿌리라고 인식한다. 이 넝쿨은 모든 목회의 영역을 휘감아서 숨이 막히게 한다. 개인의 영성을 차지하는 기도, 묵상, 헌신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요구가 침투해 있다. 교회의

---

[209]Eugene Peterson, *그 길을 걸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7), 21.

[210]Ibid., 64.

사역분야에서 예배, 프로그램, 지향하는 가치, 심지어 복음과 부흥이라는 단어의 내용도 왜곡시키고 있다.

1) Site Team의 평가

Site Team은 개혁적인 시도에 대한 순수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순수성은 개혁적 시도를 목회 성공의 이점을 취하려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지속성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개혁적 시도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깨끗한 목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교회의 설립 과정에서 교인의 수평이동을 이용한 현실적 장점을 포기한 것에 대한 평가이다. 왜곡된 개척 방식을 따르지 않은 실천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구제비와 선교비의 우선적 책정 및 집행, 민주적 정관 만들기 등은 Site Team이 받아들이는 개혁적 이미지들이었다. 하지만 개혁적 시도들을 시도할 수 있는 현실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교회의 최소 유지비용만 남기고 구제비와 선교비로 지출하는 시도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교회의 최소 유지 비용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민주적 정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평신도 리더십의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강요당해오던 기존의 교회 생활 습관에 따라 평신도의 적극적인 리더십 개발이 용이하

지 않았다.

다음은 김경환 전도사의 평가이다. “나는 8년전 한재경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섬기시던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한인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로 처음 만난 이후 지금까지 때론 나의 멘토로, 때론 동료목회자로 그리고 때로는 친한 친구로 서로 깊은 교제의 끈을 이어 오고 있다. 젊고 유능하신 한 목사님은 약 3년전 하늘뜻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혁하는 목회자 의 상을 세우고 실천하기위해 노력하는 삶의 걸음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개혁하는 목회는 나의 삶과 목회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늘뜻교회의 홈페이지(www.heavenswill.org)에 가보면 개혁하는 목회자의 고민과 아픔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투명한 목회를 추구하며 교회 정관을 준비하는 모습, 예 결산의 투명한 공개, 특히 예산 집행의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고 은행 최저 바란스만 남기고 구제비와 선교비로 모두 집행하는 결의는 그의 씻음과 개혁의 목회자의 상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실제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나의 작은 바램은 지금의 작은 규모의 예산 집행 상황에서 실천하던 이모든 일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예결산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끝까지 그의 모든 약속을 지켜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목사님의 신념과 결의가 강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에 이런 나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줄 것을 확신한다.”

2) 목회자 자신의 평가

교회의 갱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갱신과 개혁의 대상이 되는 실재는 비신앙적이면서 비성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멈출 수 없다. 그 멈춤은 곧 더 이상 교회임을 포기하는 굴복이다.  교회 갱신의 필연적 당위성은 시대의 타락에서 기인한다. 세상의 세력은 점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이런 존재론적 필연 때문에 교회는 갱신을 멈출 수 없다. 소극적인 의미의 개혁은 교회 안에서 권력 지향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본인이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왜 목회의 중심에 세우는지 깊이 통찰해 볼 일이다. 개혁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혁 자체보다는 수단으로 해서 다른 무엇가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작은 교회의 생존 원리는 높은 도덕성과 가치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존 교회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작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경우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기득권으로 합류하려는 생존경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자기 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해 개혁의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교회의 자리가 작은 교회에서 중, 대형 교회로 이동될 경우 폐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둘째, 교회 개혁과 갱신을 목회의 자기 생명력으로 삼는 경우이다. 개교회의 안정보다는 보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된다.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개혁과 갱신을 멈추지 않는다.

목회자가 얼마나 개혁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여러 차원에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목회자의 자기 갱신의 관점이다. 목회자가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얼마나 자기 갱신이 삶의 자리에 기반하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 얼마나 하향적인가 이다. 본인은 미주 한인교회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많은 분쟁과 지나친 경쟁주의, 대형교회 중심의 승자독식의 방식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방식에 물들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이 미국적 방식이다. 교회를 소비기업으로 바꿨는데, 미국인들은 인수 합병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인수 합병이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계속 발전되는 경제다.[211] 소비의 개념과 철학,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소비의 철학과 가치관에 오히려 소비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단순한 영성과 삶에 기반하지 못한 비현실적이며 환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미주한인교회가 보여주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영성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211]Ibid., 21.

통성기도, 금식기도, 잦은 집회 개최, 새벽기도 등은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오직 부흥주의에 맞춰진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도와 영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미주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에 따른 다양한 영성의 역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 교회주의와 부흥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나치게 예배 중심적이다. 삶이 배제된 신앙중심의 패턴은 자기 중심적이고 삶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런 흐름은 신앙 성숙의 기회를 반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회 중심, 일요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것은 본인이 바라보는 교회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다. 그야말로 생활의 신앙이 아니라, 주일 신앙만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본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떻게 삶과 신앙, 주중의 생활과 일요일을 통전적으로 연합할 것인지가 개혁과 갱신의 초점이며 대상이다. 교회 갱신의 방향은 일요일에 갇힌 신앙인을 해방하고, 주중을 거룩하게 되살리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살아가는 주중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평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매개체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낀다.

공동체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미보다는 주

중의 삶에 드리워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려는 좀 더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생활 공동체 운동이다. 이것은 본인이 목회자로서 가진 부족함을 헌신의 재물로 내놓은 의미이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인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모습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212]

또한 필자는 목회자로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목회자 중심의 예배를 평신도에게 공개하고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꾸준히 여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신도 그룹에는 남녀 평등주의뿐만 아니라 세대간 평등주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남신도와 여신도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동일한 예배 참여의 주체로서 기회를 제공받는다.

### 3. 물의 상징 2: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드는 목회자

도덕경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모두가 불편해 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다.[213] 이것은

---

[212] Tomas Merton, *고독 속의 명상,* 장은영 역 (서울: 성바오로, 2009), 53.

[213] 老子, 47.

물이 세상의 무엇보다 부드럽고 여린 것이기 때문이다.[214] 물의 존재론적 형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데 있다. 물은 가장 바닥으로 흘러간다. 아무리 작은 공간도 물이 차오를 때까지 흘러가는 것이 물의 특성이다. 더럽거나 추하거나 상관없이 물은 가장 바닥으로 흘러 간다. 가장 낮은 곳은 물이 찾아가는 고향이다. 물이 바닥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이다.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이다.[215]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목회자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윤리이다. Henri Nouwen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뿌리는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에 있음을 통찰했다.[216] 이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됨으로써 길이 열린다. 십자가의 길은 하향성의 삶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며 은유이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목표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이다. 결국 우리의 소명은 낮아지는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좇고, 시공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217] 우리는 자기 비움의 원형을 삼위일체에서 찾을 수 있다.

---

[214] Ibid., 328.

[215] Ibid., 280.

[216] Henri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 역 (서울: IVP, 2003), 27.

[217] Ibid., 59.

삼위일체는 하나님Theos, 말씀Logos, 영Spiritus 이다.[218] 그리스도의 육화(肉化)와 성령의 육체에 내주하심은 자기 비움의 결과이다. 이처럼 자기 비움은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게 된다. 물은 바닥부터 차오르지 않고는 결코 높은 곳에 머물 수 없다.

낮은 곳으로 흘러 드는 물의 신비로운 특성은 목회자가 얼마나 긍휼의 심정을 중심에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나타난다. 목회적 전문성이 긍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전문성의 습득과 함양에만 집중하고 의존할 때 긍휼히 여기는 깊은 마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기독교 지도자는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219] 목회적 돌봄은 전문적인 기능인의 역할 이전에 존재의 깊이를 보여주는 긍휼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Site Team의 평가

홈리스 사역, Hispanic mission, 부교역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본인에게서 발견하면서 무엇보다 Site Team의 평가는 함

---

[218] 곽승룡, *비움의 영성*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29.

[219] Henri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8), 62.

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보았다는 데 있다. 낮은 곳과 그곳의 사람들은 목회의 출발이자 마침점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다고 본다.

다음은 양기영 전도사의 말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목회자이다.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사이드 팍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미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이 길거리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빵과 음료로 낮은 곳을 혼자 찾아갔던 목회자였다. 그는 물처럼 연약하지만, 자신에게 깨끗한 목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목회자이다.”

하지만 낮은 곳이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여러 시행착오와 계속적인 도전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부르시는 예수를 고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목회자 자신의 평가

물은 빛과 화친하고 먼지와도 동거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상징처럼 이해된다.[220] 목회사역에 있어서 가장 깊은 바닥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스며드는 물의 특성이 드러나는지가 평가기준이 된다. 이것은 머무름이 아니라 지향의 문제이며 관계의

[220]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04), 512.

문제이다. 사역의 핵심은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에 있다. 현재 얼마나 바닥에 목회의 자리를 펴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바닥이 상징하는 고난의 자리로 흘러내려가고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존재의 지향점을 향해 지금도 스스로를 부드럽게 해서 가장 깊은 바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본인은 관계론적 측면에서 바닥이 상징하는 고난의 자리로 내려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존재론의 평가와 구별되어야 한다. 아직은 자기를 비워 바닥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각성과 의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 차원에서 바닥의 삶으로 내려가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우선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우선된다. 전적으로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즉 삶의 중심을 자신 안에서 먼저 발견해야 한다.[221] 스스로 가장 깊은 바닥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경험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비로소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진실할 수 있다. 상처와 고난의 체험은 필자를 물의 존재론적 원형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바닥인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려는 목회적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얼마나 존재의 중심에 긍휼을 품고 있는지 묻게 된다. 모든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해는 긍휼에서 나온다.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품고 있는 긍휼의 원천은 아버지의 상실로 만들어진 억압적 환경에서 비롯된 상처에

---

[221] Henri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121.

있다. 상처의 깊이는 타자를 이해하는 긍휼의 원천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특별히 성서적 가치가 담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바닥의 사람들과 함께 존재적 뿌리를 공유한다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의 목회적 관심은 언제나 지금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디인지에 대한 실존적 물음에 있다. 그러므로 목회적 돌봄은 바닥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맞춰진다. 이런 관계성은 이 물음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과제로 귀결된다. 홈리스 형제들, 거리의 일일 노동자들이 겪는 가난의 고통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미주 한인 1세대가 겪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세대간 갈등,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 필자가 발견한 갈릴리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자의 목회적 본분이며, 그 형태는 공동체 운동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래로의 지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대의 공간을 열어 준다. 하방연대下放 連帶란 말이 있다. 낮은 곳으로 지향하는 연대이다.[222] 이런 사역의 방식은 사역과 생활 공동체의 자리를 발견하는 핵심이 된다. 아래로 향하는 연대는 결핍과 고난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공동체 운동도 이런 하방연대에 따라 발견되었고, 이뤄지고 있다. 아픔과 고난의 자리는 곧 교회의 공동체가 사역 또는 생활의 형식으로 만들어 지는 삶의 자리가

[222]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서울: 돌베개, 2005), 285.

된다. 이것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지 않으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숨겨진 나라이다.

### 4. 물의 상징 3: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목회자

물의 상징이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연관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존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좁고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천하에 물보다 약한 것이 없지만 강한 것을 공격하기에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며 이를 대신할 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223] 물은 결코 다투는 법이 없다. 산이 가로막히면 멀리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몸을 나누어 비켜간다. 가파른 계곡을 만나 숨 가쁘게 달리기도 하고 절벽을 만나면 용사처럼 뛰어내리기도 하는 것이 물이다.[224] 자기 존재의 약함이 부드러움을 만들어 내고, 결국 강한 것을 이겨내게 한다.

가장 연약한 목회자는 자신의 내면의 삶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정확한 언어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정

---

[223]老子, 328.

[224]신영복, 285.

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한 원천이 될 수 있다.[225] 목회자는 자신의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놓아 그들이 자신의 혼란을 헤치고 확고한 생명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26]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용기있게 드러내는 목회자만이 진정으로 연약한 이웃을 품을 수 있다. 물이 보여주는 연약함의 표징은 목회사역의 진정한 강함과 진실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켜 준다.

1) Site Team 평가

Site Team은 가장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함을 찾는 진정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 교회의 민주적 정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적 정관은 신학적으로는 만인제사장직의 현실적인 적용이란 측면도 있지만, 교회정치의 차원에서는 목회자가 가진 권위와 전통적인 권력을 분산시키고 평신도에게 양도하는 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 자신의 권위를 내려 놓음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또한 본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교인 숫자에 대한 컴플

---

[225]Henri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57.

[226]Ibid., 58.

렉스를 갖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부흥주의는 곧 교인 수에 대한 양적 증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 본 교회는 분명히 연약한 공동체이다. 물론 교인 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교회의 지향점이 교인 수를 늘리는 부흥주의에 맞추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본다고 평가했다. 내적인 영성의 회복과 사회선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목표를 둔 것을 보았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연약한 공동체와 목회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란 소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2) 목회자 자신의 평가

목회자 자신의 진정한 리더십이 강함과 가시적인 성과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히려 연약함과 상처, 고통을 내보이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관계의 깊은 신뢰가 없다면 결코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감추고 있는 공적 가면을 벗을 때에만 가능하다.[227] 목회적 돌봄에서 필자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성직의 권위로 가르치는 자인지 아니면 본인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민하는지 평가될 수 있다. 필자 자신에 대한 인식

[227]Donald R. Hands and Wayne L. Fehr, *성직자를 위한 건강한 영성*, 이정기 역 (서울: 예영미디어, 2002), 51.

을 위해 Blanton-Peale Institute에서 2년 동안 16번의 Supervision을 받았다. 필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역기능 가정에 대해 분석을 하고 생존을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과거로의 여행을 다녀왔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상실감, 가난으로 인한 주변의 따돌림, 유교 사회에서 개신교를 믿은 종교적 소수자로서의 박해, 파괴된 자존감, 큰 피해의식 등이 어린아이로서의 필자의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던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고통의 경험을 인식하고 서서히 드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필자는 오히려 연약함과 아픔, 고통을 드러내는 과정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목회적 돌봄의 귀중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우들과의 여러 모임을 통한 대화 중에 필자가 먼저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이런 방식이 교우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품성을 굳게 믿는다.

## 5. 물의 상징 4: 낮은 곳에서 다시 모이는, 공동체 지향의 목회자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에서 물은 다시 모인다. 험난한 길을 걷고 물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모인다.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오직 공동체뿐이다. 자신의 약함을 드

러내는 정도는 참여하는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신뢰에 비례한다. 신뢰하는 만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공동체는 신뢰와 친밀함intimacy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예수께 나아간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가난, 약함, 영적 비참함과 나약함을 지닌 채 그분께 가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228]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알 수도 없다. 애정 없는 타자와 관계없는 대상에 대한 환상을 깨야만 한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출발이다. 물의 다수인 바다는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상징한다.

공동체는 어려운 길이다. 서구 문명이 세계의 대세를 이루는 지금, 우리는 서구철학이 주는 존재론 중심의 사고를 해 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그리스도 철학을 위시해서 서구문명은 존재의 본질을 묻는 데 에너지를 투자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문명은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 중심의 사고를 발달시켜 왔다.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차이보다는 관계에 집중한다. 중국철학의 대표적 저작인 논어는 인간 관계론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서양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道는 글자 그대로 길인 것이다. 동양적 구성원리로서 관계론에서는 관계가 존재이다. 인성이란 개별 인간의 내무에 쌓아가는 어떤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개인이 맺고

[228] Tomas Merton, 42.

있는 관계망이라는 의미이다.[229]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동양사상적 담론의 길이 열린다. 내가 타인을 알 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연의 대상물과는 달리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쌍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230]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대하지 않고, 각 사람을 풀어야 할 문제로 다루는 편이 훨씬 쉽다. 또한 공동체를 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기능에 의해 다루어진다.[231]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사물처럼, 대상화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로 보게 된다. 또한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다.[232]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는 공동체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진정성은 오직 공동체를 이룬 웅덩이로 가능하다. 웅덩이에 물이 차올라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밖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1) Site 팀의 평가

---

[229]신영복, 174.

[230]Ibid., 41-42.

[231]Eugene 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김유리 역 (서울: IVP, 2001), 190.

[232]유재근 편, *맹자 2* (서울: 동학사, 2009), 1065. ; 流水之爲物也는 不盈科이면 不行하니.

공동체 지향의 관점은 특별히 공동육아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 졌다. 공동체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결핍에서 생겨난다. 이민사회는 맞벌이 부부로서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존과 교육 사이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희생을 강요당한다. 목회자는 이런 치명적인 결핍과 요구를 주목하였다.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되었다. 고난받는 현실을 사고와 활동의 중심에 놓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시선을 고난받는 현장에 두었을 때 새로운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과정은 힘을 모으는 공동체의 성격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는 소득을 얻었다.

과제는 방과후학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은사 중심의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을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교우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과제로 주어졌다. 또한 은사 그룹들 간의 시기와 경쟁, 질투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제기되었다.

2) 목회자 자신의 평가

본인은 공동체만이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무한경쟁과 일등제일주의, 그리고

승자 독식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도전 앞에서 참다운 교회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는다. 공동체적 교회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힘 없이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공동체만이 인간의 무력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낸다. 공동체로 사는 적극적인 삶의 모험 속에서만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된다.[233] 하늘뜻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공동체의 지향은 가장 중요한 목회의 한 축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제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필자에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장소라고 믿는다.

그러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자가 체득한 자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의미 깊고 가치 있는 일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다. 필자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모양인 것이다. 한국의 급진적인 산화화는 농촌의 공동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해 버렸다. 미처 마을 공동체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계승하기도 이전에 파괴되어 버렸다. 이에 더해서 개신교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필자가 성장한 농촌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의 협동을 위한 품앗이 전통과 정신적 종교적으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산업화는 경제 공동체를 파괴했고, 개신교의 제사거부는 유교 공동체 전통을 무참히 거부하였다. 유교의 제사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개신교 신

---

[233]Eberhard Arnold, *공동체로 사는 이유*, 편집부 역 (서울: 쉴터출판사, 1998), 16.

앙이 깊은 기준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를 살아왔다. 그러므로 필자의 공동체에 대한 접근은 다분히 실제적이지 않고 신학적이며 이론적임과 동시에 이상주의적이라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잠깐 동안 섬광처럼 비추었다 사라졌다.[234]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는 참된 교회의 기준이며 현실이어야 한다. 공동체의 출발은 자기를 비우는 데 있다. 공동체의 비밀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데 있다.[235]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데 공동체만한 것이 없다. 나를 얼마만큼 비울 수 있는지의 현실적 실험무대가 된다. 목회자 이전에 하나의 실존하는 존재로서 필자는 공동체와의 관계성 안에서만 진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생활 공동체 운동은 비록 미약하지만 필자의 희생이 담겨있고, 하늘뜻 교회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실험적 무대가 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의식적인 측면에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실현된다고 고백한다. 이 같은 인식은 하늘뜻 교회를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동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본 교회의 공동체적 요소가 강화되느냐에 따라 목회적

[234]Ibid., 24.

[235]Ibid., 33.

성공 기준을 내면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Mentor Group의 구성과 활용방안

본인은 2008년 3월부터 Mentor Group을 형성하고 도움을 받아오고 있다. Mentor Group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은 이민목회와 이민교회의 위기 앞에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Mentor Group의 지도는 전 한신대 교수였던 문동환목사가 감당하였다. 교단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Mentor Group을 만들기 위해 공개모집되었다. PCUSA, 한국성결교, 예장 통합, 합동정통, 침례교, 기장 등 다양한 배경의 목회자가 관심을 두고 참석하였다. 예상 밖으로 호응이 좋았다. 이는 이민교회의 대안에 대한 목회자의 심각한 고민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모임은 2008년 3월 1일 New Jersey Bloomfield에 소재한 Bloomfield Presbyterian Church에서 시작되었다. 문동환 목사가 제시하는 떠돌이 신학의 관점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전체를 살펴보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성서 전체를 하나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통찰하면서 우리의 목회 현장을 진단하고 세상이 주는 도전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얼마나 성서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고난을 드러내었

고, 대안을 같이 논의하였다. 특별히 세계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목회자와 교인의 영성을 헤치고, 성서와 동떨어진 교회의 구조에 대해 통찰할 수 있었다. 특별히 다윗 전통과 출애굽 전통에 대한 개념의 확립은 더욱 병든 이민교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부흥주의와 같은 양적 성장과 이민교회가 여전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물중심의 성전건축 운동은 축복 운동의 핵심인 다윗 전통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었다.

고난에 부딪친 민중이 어떻게 출애굽 전통을 이어왔는지 확인하였고,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출애굽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는지 마가복음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출애굽 전통을 잇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본인은 이 성서 연구반의 성격을 목회의 Mentor Group으로 규정하였다. 목회의 모든 과정을 성서연구반의 토론과 공부를 통해 되돌아 보고 방향성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 특별히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매개자 였던 Q공동체에 대해 목회적 재발견은 Mentor Group이 전해준 성과였다. 또한 교회의 예배 갱신에 있어서 주기도문의 재발견과 함께 예배의 중심에 주기도문을 허용하는 문제는 문동환목사에게 빚지고 있다. 이처럼 목회의 중심을 성서적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참여한 Mentor Group 안에서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었다.

Mentor Group의 구성을 통해서 본인은 새로운 개혁운동의 시발점을 보고자 했다. 개혁운동의 연대에 있다. 특별히 젊고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목회자들의 관심과 고민은 앞으로 이민교회 성숙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같이 이민교회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러나 개혁운동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역사적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시고 발전시켰듯이, 이민사회를 위한 개혁도 하나의 '운동'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서로 연대하면서 개혁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이민교회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직시와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 제 8 장 결론

본 논문은 미주 이민사회에 정신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미주한인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각성의 바탕 위에서 태동되었다. 분열과 분쟁으로 점철된 이민교회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속에서의 경쟁의식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고, 이런 위협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노출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미주 한인교회들이 3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이고, 100명이상의 중간급 교회들도 심각한 분쟁에 시달리며 여러 개로 분열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교인들도 세계의 덫에 걸려 교회를 경쟁의 축소판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속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상통한다.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우리의 목회현장이 되었다.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치열한 경쟁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목회는 전쟁이 되었고, 기업경영과 마케팅 전략이 교회 운영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성도들도 나름대로 교회를 신앙공동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백화점 식의 쇼핑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그동안 수십년 동안 개신교가 추진해 왔던 부흥성장 제일주의의 한계들이 곳곳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노출되었다. 개신교의 대사회 이미지

의 추락은 대형교회보다는 신생 소형교회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의 추락, 부흥 제일주의의 한계, 목회적 대안 패러다임의 부재, 그리고 목회자의 고립 등이 위기의 실체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대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논의, 그리고 본 교회를 통한 실험적 실행이 본 논문을 통해 정리되었다.

본 교회는 건강하고 개혁적이면서 이민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앙공동체를 목표로 출발하였다. 건강한 교회의 속성은 개척의 구성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개척하기 전에 교육목사로서 시무하던 교회의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교회의 건강한 정체성을 위해 창립교인을 확보하지 않고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정당성과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이민교회 대안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해 민중신학의 제3교회론에서 신학적 기초를 찾아보았다. 그것을 본인은 성령의 은사 중심의 교회론으로 이해하였다. 특징으로는 평신도 중심의 평등적인 교회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안 교회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신학적인 기초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된 개인의 은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끝없는 만족을 추구한다. 하지만 소명과 관련된 은사는 가장 내면적이면서도 깊은 영적 여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발

견될 수 있다.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삶의 터전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영적 참된 자기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회의 교육적 시스템은 은사의 재발견에 대한 여정을 돕는데 맞춰져야 한다. 본인은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천 스쿨은 성경의 핵심적 가치와 이에 따라 살아가는 현장의 리더들을 초청하여 성도들에게 현재에 이루어진 성육신 사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핵심적 가치는 성서적 가치의 재발견을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균형에 두고 있다. 다양한 현장에 대한 네트웍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다. 홈리스 사역, 가난한 이웃을 위한 housing project ministry, 노인 사역, 전도 사역, 난민 사역 등 우리가 공부한 성서의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은사를 고민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과후학교 사역도 이런 맥락에서 기획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성서적 토대는 역사적 예수를 전해주었던 갈릴리와 시리아의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Q 공동체에 대한 삶의 자리를 연구하면서 본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조명해 보았다. Q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삶의 진보성과 단순성, 가난은 이민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Q 공동체가 살았던 삶의 자리로의 회귀운동에서 이민교회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2세기의 요한복음 공동체가 유대주의적 배타주의를 답습했던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반기

를 시점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Q 공동체의 무소유적 예언자 운동을 이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과제는 제도로서의 교회에 위임되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도전 앞에서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우리의 과제이다. 복음전파는 곧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다.

특별히 세계적인 민주화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주체로 서는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예민하게 인식하면서 평신도 리더십의 건강한 발전과 더불어 목회자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실존은 곧 소명의 발견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소명은 은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그 차원의 깊이를 넓혀갈 수 있다. 다양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정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총결적 정리를 해보면서, 본인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벽의 두께를 절감한다. 현실의 벽은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 어둠은 현실이고 빛은 아직도 멀다. 문동환 교수의 말처럼, '집단적인 각覺'이 형성되기까지 선각

자는 고민과 번뇌에 사로 잡힌다고 했다. 본인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실적 통로로서 사랑한다. 이 요원한 이상의 씨앗이 하늘뜻교회를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뿌려지고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Georg Simmel(1858~1918)은 화폐경제가 바꾼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인격적이며 특별했던 모든 관계를 철저히 유보하고 개인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르쳐주었다. 현대인은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백 가지의 결합관계들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236]

이것이 우리가 딛고 선 삶의 자리를 가장 명쾌하고 단순하게 표현해 준다.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직접적이고 인격적이지 않다. 오직 화폐를 중심으로 헤쳤다 모이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더 나아가서 Simmel은 기독교 신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한 인간의 감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237] 다시 우리 존재의 중심에 화폐가 상징하는 세속적 권력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돌려놓는 일이 교회의 교육적이며 신학적인 과제이다.

[236]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서울: 프로네시스, 2010), 42. 재인용.

[237]Ibid., 51.

# BIBLIOGRAPHY

## 1) 외국 서적


Abalos, David T. *The Latino Family and the Politics of Transformation*.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3.

Aleshire, Daniel O. *Faith Care: Ministering to all God's People through the Ages of Lif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Arnold, Eberhard. *공동체로 사는 이유*. 편집부 역. 서울: 쉴터출판사, 1998.

Beker, J. Christian. *사도바울: 바울의 생애와 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장상 역. 천안, 충남: 한국신학연구소, 1998.

Bethge, Eberhard.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54.

________. *Spiritual Care*. Translated by Jay C. Rochel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5.

Borg, Marcus J. *기독교의 심장*.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Brand, Paul and Philip Yancy.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 최규택 역.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06.

Brecher, Jeremy and Tim Costello.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Cambridge, Massachusetts: south End Press, 1998.

Cohn, Noman. *천년왕국운동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Colson, Charles W. and Ellen Vaughn.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2005.

Con, James. *눌린 자의 하느님*. 현영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부출판부, 1979.

Curzon, G. N., *The True Imperialism.* Birmingham, 1907.

Dawn, Marva J. *언어의 영성.*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09.

Edersheim, Alfred. *Sketches of Jewish Social Lif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4.

Ford, David F. and Rachel Muers eds. *The Modern Theologian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since 1918*.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5.

Foster, Richard and Emilie Griffin, eds. *영성고전산책.* 방성규 역. 서울: 두란노, 2002.

Frazee, Randy.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Gadamer, Hans-Georg. *Praise of Theory.* Translated by Chris Daws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8.

Ghezzi, Bert. *느낌을 마주하라.* 문종원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Grubbs, Dwight L. *Beginnings: Spiritual Formation for Leaders*. Lima, Ohio: Fairway Press, 1994.

Godsey, John D.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유숙성 & 김성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Hands, Donald R. and Fehr, Wayne L. *성직자를 위한 건강한 영성.* 이정기 역. 서울: 예영미디어, 2002.

Heschel, Abraham Joshua. *누가 사람이냐.* 이현주 역. 고양, 경기: 대한기독교연구소, 2008.

Hodgson, Peter C. *Winds of the Spirit: A Constructive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Holland, Joe and Peter S. J. Henrit. *Social Analysis: Linking Faith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83.

Jeffers, James S. *The Greco-Roman World of the New Testament Era: Exploring the Background of Early Christianity.*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9.

Kai, Nielsen. *Globalization and Justice.* Amherst, NY: Humanity Books, 2003.

Kloppenborg, John S. *Q the Earliest Gospel: An Introduction to the Original Stories and Sayings of Jesu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Law, Eric H. F.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 Spirituality for Leadership in a Multicultural Community*.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1993.

Lee, Jung Young.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5.

Masterson, James F. *참자기: 심리치료 과정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McGrath, E. Alister. *Christian Spiritual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9.

________.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 훈련*.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3.

Merton, Tomas. *고독 속의 명상*. 장은영 역. 서울: 성바오로, 2009.

Miller, Jean B. and Irene P. Stiver. *The Healing Connection.* Boston, MA: Beacon Press, 1997.

Nouwen, Henri J. M. *Here and Now: Living in the Sprit*.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4.

________. *The Only Necessary Thing*.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9.

________. *Here and Now: Living in the Sprit*.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4.

________. *긍휼: 하나님과 만나는 길,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길*. 김성녀 역. 서울: IVP, 2002.

________.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8.

________.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역. 서울: IVP, 2003.

________. *죽음, 가장 큰 선물*. 홍석현 역. 서울: 홍성사, 1998.

________. *영적 발돋움*. 이상미 역. 서울: 두란노, 2007.

________.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2008.

________. *예수, 우리의 복음.*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2.

________. 친밀함.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1.

Neuhaus, Richard John. *Freedom for Minist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92.

Min, Pyong Gap. 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2d e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2006.

Min, Young Jin. *A Study on the MinJoung Theology in Korea.* Seoul, Korea: Korea Christian Academy, 1983.

O'Connor, Elizabeth. *Eight Day of Creation: Discovering Your Gifts and Using Them*. Washington, D.C.: The Potter's House Bookservice, 1971.

Osterhammel, Jurgen and Petersson, Niels P. *Globalization: A Short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almer, Parker.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홍윤주 역, 서울: 한문화, 2007.

________.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윤규상 역, 서울: 해토, 2007.

Peck, M. Scott. *평화 만들기*, 김민예숙, 김예자 공역, 서울: 열음사, 2006.

Peterson, Eugene. *다시 일어서는 목회.*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________.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1999.

________.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________.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종태 양혜원 역. 서울: IVP, 2005.

Stokes, George T.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Acts.* Rio, WI: Ages Software inc., 2002.

Stortz, Martha Ellen. *Pastor Power*.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Sweet, Leonard.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Tillich, Paul. *문화의 신학*. 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Vanier, Jean. *Community and Growth*. Mahwah, NJ: Paulist Press, 1989.

________. *봉사의 스캔들*. 김현수 역. 서울: 바오로딸, 2006.

Winnicott, Donald W.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Whitehead, Alfred N. *과정과 실재*. 오영환 역. 서울: 민음사, 1996.

Witherington III, B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Yperem, Jim Van.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종근 역. 서울: NCD, 2003

Yunus, Muhammad.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 자본주의의 미래*. 김태훈 역.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2008.

Zhang, Ting Bin.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 중국과 미국의 힘 겨루기*.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9.

Ziegler, Jean.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07.

________.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양영란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08.

老子, *도덕경*. 오강남 역, 서울: 현암사, 1995.

2) 한국 서적

가흥순. *성만찬과 예배갱신*. 인천, 경기: 여명, 2009.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서울: 프로네시스, 2010.

곽승룡. *비움의 영성*.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관진관.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서울: 동연, 2009.

구학서, *이야기세계사 2*. 서울: 청아출판사, 2008.

김경재. *폴 틸리히 신학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________. *폴 틸리히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________. *영과 진리 안에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명수. *큐 복음서의 민중신학*. 서울: 통나무, 2009.

김용복. *지구화 시대 민중의 사회전기: 하나님의 정치경제와 디아코니아 선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김진호.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서울: 동연, 2010.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04.

김흡영. *道의 신학*. 서울: 다산글방, 2000.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서울: 통나무, 1999.

법정. *맑고 향기롭게*. 서울: 조화로운 삶, 2006.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송기득. *역사의 예수: 그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길사, 1993.

________.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이상수. *건강한 교회성장 이제는 시스템이다*. 서울: 말씀삶, 2005.

이성덕, *이야기 교회사*. 파주, 경기: 살림, 2007.

이연학,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거룩한 독서의 원리와 실천*.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신서, 2006.

임헌영,“씨알의 생태 환경사상” 함석헌기념사업회 편,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서울: 한길사, 2001.

오강남, *또 다른 예수*. 서울: 예담, 2009.

오영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경험*. 서울: 통나무, 1997.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서울: 푸른나무, 2006.

윤재근 편. *맹자 2*. 서울: 동학사, 2009.

신광은. *메가 처치 논박*. 경기 부천: 정연, 2009.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서울: 돌베개, 2005.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경련. *한국의 민중신학 연구*. 서울: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1983.

죽재서남동기념사업회 편. *서남동과 오늘의 민중신학*. 서울: 동연출판사, 2009.

최덕성.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5.

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교회 힐링 메세지*. 서울: 김영사, 2009.

허성준. *사막에서 길을 묻다*. 서울: 생활성서, 2008.

3) 간행물(Article)

김상근. “해방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오순절의 시대인가?(2).” *기독교사상* 575 (November 200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애영. “여성해방적 예배의 추구와 전망.” *신학사상* 146 (Fall 200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강성영. “하나님의 고난과 뒤따름의 의미.” *기독교사상* 574 (October 2006).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박근원. "리마 예식서의 새로운 평가." *기독교사상* 443 (November 199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박세길. "극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Ⅱ)." *민* (December 1999).

박승옥.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기독교사상* 643 (January 201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신현종. "세계화의 배경과 경쟁." *산경연구* 6. 대구: 영남대산업경영연구소.

신현종.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사회과학연구소* 18-2. 대구: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이혁배. "한국 교회의 행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245-274. *신학사상* 146 (Fall 200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정용섭. "진보신학, 비판적 성찰: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592 (April 200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정재영. "사회의 변화와 목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조연현. "기독교 초심의 신앙적 문법으로 돌아가라." *기독교사상* 587 (November 200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최철호. "하나님나라 공동체, 생활 영성, 상호목회." *기독교사상* 610 (October 200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황순찬. "신 자유주의 세계화와 교회의 역할", *천주교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자료*, 2002.

Hope, Glenda and Sarvis, Penny. "We Are All Sparrows: Learning about, and from, San Francisco Network Ministries." *Church & Society* 86 (November/December 1995).

4) 사전류(Reference)

Aland, Barbara and Kurt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Germany: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Freedman, David Noel, Gary a. Herion, David F. Graf, John David Pleins, and Astrid B. Beck ed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ybleday, 1992.

Green, Sr. Jay P. *The Interlinear Greek-English Bible* vol.4. 2d ed.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4.

5) 웹사이트

문동환. http://cafe.daum.net/moontonghwan (assessed October 1, 2009).

오세철. “세계혁명과 반미반제투쟁.” *진보평론* 9 (Spring, 2003). http://jbreview.jinbo.net/.

“손에 손에 든 촛불,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13 (accessed July 30, 2009).

http://lectionary.library.vanderbilt.edu/ (accessed December 1, 2009).

Kouwe, Zachery. “Wall St. vs. Sports: A Look at the Top Paychecks.” The New York Times,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09/09/18/wall-st-vs-sports-a-look-at-the-top-paychecks/ (accessed October 5, 2009).

The city of summit 공식홈페이지 http://www.ci.summit.nj.us (accessed September 13, 2009).

United Christ of Church www.ucc.org (accessed September 20, 2009).

2000년 인구 센서스 http://censtats.census.gov/data/NJ/1603471430.pdf (accessed September 13, 2009).

BIBLIOGRAPHY

1. 국내서적

강병도. *QA시스템 성경연구 시리즈.* 서울: 기독지혜사, 198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______ . *주기도문강해 .* 서울: 두란노, 2002.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출판사, 1981.

라종일, 차종환, 김호, *교회의갈등 그리고 화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박응천, *세계를 향한 복음-설교를 위한 사도행전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연구소, 1997.

성종현, *신학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안병창. *새신자 훈련총서.* 서울: 요단출판사. 2009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_______, *종교개혁신학사상*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3.

원용국,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1982.

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조태환. *환희와 함께가는 가정교회.* 서울:도서출판 NCD, 2009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7.

_______.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개척 사례와 제언.* 서울: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2009

_______. *제 60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교재.*가정교회 사역원, 2010

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 서울: 두란노, 2000.

## 2. 번역서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하)* .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Bridges, Jerry. *거룩한 삶의 추구.*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4.

Bruce, Frederick Fyvie. *바울신학.* 정원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C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Covey, Stephen R. *원칙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서울: 김영사, 2001.

Cornelius Van Tu,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8.

Cupitt. Don. *예수정신에 따른 기독교 개혁.* 박상선,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Hendricks, Howard G..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Jones. ,D. Martyn Lloyd. *산상설교집*,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9.

Keener, Craig S. *IVP 성경배경주석.* 정옥배 외 역. 서울: IVP, 1998.

Kleinben, H.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Kűng, Hans. *왜 그리스도인 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5.

__________,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Maxwell, John C. *리더십의 법칙.* 강준민 역, 서울: 비젼과 리더십, 2003.

Miller, Darrow.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0.

Nouwen, Henri.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Tozer, Aiden Wilson. *이것이 성공이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orthington Jr, Everett I. *용서와 화해.* 윤종석 역. 서울: IVP, 2006.

Yancey, Philip.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김동완, 이주엽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